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병 현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 K-Culture 중심으로 -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공예전공
정 유 진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 K-Culture 중심으로 -

정 병 현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공예전공


정 유 진

인 준 서

정유진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1월

심사위원장 정재원 

심사위원 김경아 

심사위원 한영욱 

심사위원 우희익 

심사위원 김병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을 바탕으로 분석한 작품 제작 연구이다. 이 연구는 고궁의 건축적 특징과 창호의 조형적 요소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텍스타일 디자인 적용성을 기반으로 한국적 문화상품의 K-Culture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고도화된 IT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고속화된 정보화 및 대중매체 영향으로 디자인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는 디자인 트렌드와 대중문화를 넘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샤넬은 서울에서 한국의 한복을 재해석하여 한국의 전통미가 담긴 95벌의 의상으로 패션쇼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경복궁 근정전에서 한국 최초로 구찌 패션쇼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2024년 한강 작가의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화를 다시 한번 세계적인 주목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 문학 전체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K-콘텐츠는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했으며 외국인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한국 문화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는 한국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음은 물론 세계시장에 문화 콘텐츠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한국문화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확립하고 K-Culture의 독창성과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코리아 디자인의 확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낸 시대의 산물이자 당대 최고의 과학적 기술과 창의적 예술이 집약된 고궁 중 조선시대의 유일한 범

궁인 경복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 관련 문헌 자료의 고찰을 바탕으로, K-Culture와 텍스타일 산업의 글로벌화 사례연구 및 전통과 현대의 융합 사례를 분석하여 본 연구자의 텍스타일 아이덴티티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문화적 자산과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 문화유산인 고궁이 켜켜이 쌓인 역사적 시간과 문화를 담고 있는 것처럼, 한류 역시 시대를 관통하며 변화하고 발전해 온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에서 창호의 조형 요소를 모티브로 표현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공간의 교차점으로서, 그 나라의 위상과 국민들의 정신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해석하여 고궁 창호의 예술적 가치와 상징성을 텍스타일디자인으로 개발하여 한국의 문화상품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이 반영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고궁 창호의 구조적 형태를 분석하고 기하학적 추상성과 K-Culture의 확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 배경을 기술하였다. 고궁 건축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통하여 학적 가치를 연구한 후, 창호의 조형적 요소를 도출하여 본 연구 작품이 한국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텍스타일디자인이란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다.

제 II장에서 한국 고궁 중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고궁의 건축 양식과 창호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경복궁 내 다양한 전각에 사용된 창호의 구조적 형태와 문양을 분석하고 창호 문양의 기하학적 요소와 반복 구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가변성을 발견하고 텍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한국 콘텐츠를 통해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텍스타일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전통

의 아름다움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여 전통과 현대의
합일 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제 III장에서 K-Culture와 텍스타일 산업 융합의 확장성을 위한 사례 분
석으로 시기에 따른 한류 문화의 변화 단계 및 텍스타일과 패션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관한 사례를 수집 분석한다. 한류 현상
의 다양한 분야 중 K-브랜드와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 적용한 한국 문화
의 독창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도출된 고궁건축과 창호의 구조적
형태에서 도출한 기하학적 요소와 조형적 특성을 K-미술과 현대패션의 융
합 사례를 통하여 다양한 패션 상품 제작 과정에서 전통공예와 현대 텍스타
일 디자인의 조형성과 물질의 재구성 기법의 활용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고궁과 창호의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기하학적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과 미니멀의 시각화 패턴화 방법을 도출하였다.

제 IV장에서 전통 창호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한 텍스타일디자인의 시각적
패턴화 작업을 진행하여 텍스타일디자인에 궁궐 창호의 조형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연구한 디자인을 디지털 텍스타일 프
린팅 방법을 통하여 패션 문화상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을 가
진다. 패션 문화상품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 트렌드를 도출하고, 다
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제 V장에서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연구를 통하여 결과를 정리하였
다. 이상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의
창의성과 상징성을 예술적 작품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한국의 문화디자인을
객관화하고 예술적 가치를 가진 상업적인 패션 문화상품으로 분야에서 활용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고궁 건축, 고궁 창호, K-Culture, 한류, 경복궁, 텍스타일 디자인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II. 고궁 건축과 스토리텔링	4
1. 한국 고궁 건축의 미학적 가치.....	4
1) 고궁의 역사.....	5
2) 고궁 건축 특징.....	11
2.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	16
1) 고궁 창호의 구조적 형태.....	16
2) 고궁 창호의 조형적 요소와 텍스타일 적용성.....	23
III.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	27
1. K-Culture의 확산과 전통미.....	27
1) K-Culture와 한류.....	27
2) K-Culture와 텍스타일.....	30
2. K-브랜드와 텍스타일 재구성.....	35
1) 다시곰 (Darcygom).....	35
2) 이세 (Iise).....	37
3) 미미달 (Minidar).....	38
3. 텍스타일의 다양성.....	40
1) 아트와 텍스타일: 박서보, 하종현.....	41

2) 기하학적 구조와 텍스타일: 프랭크 스텔라	43
3) 미니멀리즘과 텍스타일: 엘즈위스 켈리	48
IV. 텍스타일 디자인의 스토리텔링	50
1.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51
2. K-디자인과 문화상품 개발.....	53
V. 결론 및 제언.....	101
1. 연구의 요약 및 성과	101
2. 텍스타일 디자인을 통한 K-Culture 확산의 가능성	102
3. 향후 연구 방향	103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경북궁 변화 시기.....	10
<표 2> 경북궁 건축 특징.....	15
<표 3> 경북궁 근정전과 도면.....	17
<표 4> 경북궁 사정전과 도면.....	18
<표 5> 경북궁 교태전과 도면.....	19
<표 6> 경북궁 경회루와 도면.....	20
<표 7> 경북궁 향원정과 도면.....	21
<표 8> 경북궁 권역 전각별 창살의 종류.....	22
<표 9> 주요 전각의 창호 특징과 기하학적 추상요소.....	26
<표 10> 한류의 시기별 단계.....	29
<표 11> 한국문화 콘텐츠 인기도.....	31
<표 12> 2023년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	33
<표 13> 엘즈워스 켈리 작품의 특징과 연구자 작품에서의 표현 방법.....	49
<표 14> 창호와 창살을 이용한 모티브 개발.....	55
<표 15> 작품 1 패턴 개발.....	56
<표 16> 경북궁 배치도를 활용한 모티브 개발 과정.....	57
<표 17> 경북궁 배치도 활용한 패턴 변화.....	58
<표 18> 경북궁 창건안과 배치도 패턴화 과정.....	59
<표 19> 경북궁 근정전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1.....	60
<표 20> 경북궁 근정전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2.....	62
<표 21> 기와와 처마 패턴화 과정.....	63
<표 22> 기와와 처마 모티브.....	64

<표 23> 기와와 처마 모티브의 변화.....	65
<표 24> 오방색의 구성과 의미.....	66
<표 25> 텍스타일 패턴디자인에 사용된 오방색계열.....	68
<표 26> 경복궁 근정전에서 추출한 색채.....	69
<표 27> 전각과 자연에서 추출한 색채.....	70

도판 목록

<도판 1> 경북궁 근정전.....	7
<도판 2> 경북궁 근정전.....	7
<도판 3> 경북궁 삼문삼조.....	12
<도판 4> 상공에서 바라본 경북궁 배치.....	12
<도판 5> 북궐도형과 경북궁 중심축.....	14
<도판 6> 블랙핑크의 한복패션.....	32
<도판 7> 경북궁 근정전 2024 구찌 크루즈 컬렉션.....	32
<도판 8> 다시곰 패션.....	35
<도판 9> 다시곰의 액세서리 제품.....	36
<도판 10> 이세IISE 패션소품.....	37
<도판 11> 전통 문양과 색채를 활용 미미달.....	39
<도판 12> 2022 루이비통 박서보 화백의 아티카튀신.....	42
<도판 13> 2024 크리스찬 디올 하종현 작품 ‘접합’ 시리즈.....	43
<도판 14> 2022 F/W 스텔라 맥카르티 컬렉션.....	45
<도판 15> Delaware Crossing, 1961.....	46
<도판 16> Double Mitered Maze, 1967.....	46
<도판 17> 정유진 작품 부분, 푸른점화.....	47
<도판 18> Colored Paper Image XIII.....	48
<도판 19> Black Square with Blue 1970.....	48
<도판 20> 정유진 작품 부분 Hamony, 2024	49
<도판 21> 경북궁 전각과 기와의 조화.....	61
<도판 22> 텍스타일 패턴디자인에 사용된 오방색과 PANTONE No.....	67
<도판 23> 연구자의 에코백과 고궁의 전각.....	95

<작품 1> Modernize.....	71
<작품 2> Place.....	73
<작품 3> 시간의 연속.....	75
<작품 4> 봄의 소리.....	77
<작품 5> 봄의 소리.....	77
<작품 6> 봄, 여름, 가을, 겨울.....	79
<작품 7> 풍경.....	81
<작품 8> 푸른점화.....	83
<작품 9> Hamony.....	85
<작품 10> Hamony M 1.....	87
<작품 11> Hamony M 2.....	87
<작품 12> 유니버스 B.....	89
<작품 13> 유니버스 W.....	90
<작품 14> 공간의 소리.....	92
<작품 15> 문화 상품 개발, 에코 가방.....	94
<전시장 풍경 1>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96
<전시장 풍경 2>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96
<전시장 풍경 3>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97
<전시장 풍경 4>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97
<전시장 풍경 5>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98
<전시장 풍경 6>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98
<전시장 풍경 7>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99
<전시장 풍경 8>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99
<전시장 풍경 9>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100
<전시장 풍경 10>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100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궁궐은 우리나라의 대표 건축물로서 국가의 정치·경제·문화 의례 등을 진행하는 나라의 외교 공간이며 동시에 국왕과 왕실 사람들의 일상이 영위되는 생활공간이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궁궐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깃든 건축물이며 오랜 생활 경험에서 이어진 전통적인 문화의 양식이 깃든 공간이다.

경복궁은 조선 건국의 시작으로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오랜 시간을 법궁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후 1863년 경복궁의 중건을 시작으로 고종 5년인 1868년에 재건된 경복궁은 근대화의 움직임으로 한국 근대 궁궐 건축 중에서 근대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가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조선은 근대화 기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대 전환기에 적극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각국의 외교 사신들은 경복궁의 근정전에서 서양식 접견과 연회를 가졌고 동시에 경복궁은 궁궐 중 대표적인 법궁의 공간으로 중심축에 놓인 전각을 기준으로 전각을 배치하여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이다. 조선의 고궁은 법궁과 이궁의 양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형에 따라 축을 달리하여 전각을 배치한 이궁은 자연과 풍수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시대와 역사에 근거하여 조선시대의 유일한 법궁인 경복궁을 대표 모티브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문화 트렌드에 K-Culture 문화상품의 텍스타일디자인 패턴 개발을 제안한다. 전통적인 한국 문양을 조형 원리에 의한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구성하여 시대상의 변화에 발맞춰 모

던한 접근방식으로 전통 디자인 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한국문화의 지속적인 텍스타일디자인의 변화 흐름은 한류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세계 산업시장에서 또 다른 K-Culture 콘텐츠의 한 부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은 관련 서적, 논문 및 학술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화려한 건축미와 성리학적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경복궁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여 설명하고, 두 번째는 고궁 건축의 특징으로 경복궁의 배치도와 근정전에 관하여 연구와 궁궐 전각의 조영(造營)¹⁾ 관념을 정의한다.

둘째, 한류와 K-Culture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 후, 세계적 문화 현상 중 한류 현상과 패션산업 분야에서 K-Culture의 영향력과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패션산업 분야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은 관련 서적, 학술자료, 논문과 정책보고서 및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하며, 선행들의 연구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지답사를 진행하고 문헌 조사와 선행 작가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조형성을 분석 전개하였다.

셋째, 텍스타일디자인의 효과적인 개발과 연구를 위하여 선행 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K-Culture의 확산의 의의와 전통 미학이 텍스타일디자인에 이르기까지의 글로벌화 흐름을 파악하고, 한류의 개념과 K-Culture의 확산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리고 K-Culture와 한국 텍스타일의 융합 사례를 아트와 텍스타일 조형성, K-브랜드와 텍스타일의 재구성을 통하여 한국 전통미의 현대화 표현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비

1) 건물이나 도시를 새로 짓거나 고쳐 짓는 큰 공사를 의미하며 특히, 궁궐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

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적 요소에서 나타난 조형 원리를 기하학적 측면 관점에서 분석하고 도형의 흐름을 통한 조형 연구를 확장하여 텍스타일 작품 제작을 위한 이론적 연구를 제시한다.

IV장에서는 텍스타일디자인의 작품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발상과 스케치의 전개를 통한 모티브의 배열 및 컬러의 배색 방법에 관하여 분석한다. 경복궁 근정전의 배치도를 대칭, 균형, 반복을 통하여 좌우 배치, 남쪽에서 북쪽으로 뺀 중심 축선을 통하여 천(天), 지(地), 인(人)의 조화를 나타내었으며, 건축물들의 연속적인 공간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와와 처마의 유려한 곡선과 직선이 가지고 있는 조형성을 설명하고, 유닛의 반복을 통한 질서 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V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고,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재해석한 조형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작성한다.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기본적인 형태와 선으로 구성된 미니멀한 형태로 변형하여 시각적인 집중도를 높인 텍스타일 문화상품을 통하여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II. 고궁 건축과 스토리텔링

1. 한국 고궁 건축의 미학적 가치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이는 곧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K-Culture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국 고유의 문화 정체성 그리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 공간으로서 한국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은 고궁이다. 고궁을 조영하기 위한 기술은 시대 최고 권력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결과물을 지향했으므로 당대 건축 기술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만나게 되는 고궁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서울의 옛 명칭인 한양에서 짐작될 수 있듯이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이들 고궁은 조선시대라는 역사가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조선의 도읍지, 한양에 조영되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왕조가 출현하여 도읍지를 새로 정할 때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지리적인 조건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고궁 중 경복궁은 상징적·기능적으로 정궁의 역할을 한 대표 건축이다. 경복궁은 북악산 및 북악산의 산줄기, 응봉이 끝나서 평지와 만나는 지점의 고궁 전각들이 배치되었다. 5천 년의 역사 동안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건축문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문화 특징을 바탕으로 고궁의 공간구조와 전각 주변의 지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되었다.

경복궁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 철학, 그리고 미학이

집약된 종합 예술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과의 조화,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 배치, 그리고 섬세한 장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미학적 가치를 창출한 고궁의 건축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에도 많은 영감을 주는 조선시대의 대표 건축물이다.

1) 고궁의 역사

일반적으로, 왕과 왕족이 거처하는 건축물을 궁궐(宮闕) 또는 고궁(古宮)이라고 한다. 한편, 궁궐의 의미가 기능 또는 단어적 해석을 통해 명확해진다. 궁궐은 ‘궁’과 ‘궐’을 합한 시설로서, ‘궁’은 임금과 신하의 정무 공간과 왕족의 생활공간에 해당하며 ‘궐’은 일차적으로 궁을 지키는 담장을 의미하며 이차적으로 출입문과 그 좌우에 세웠던 망루(望樓)²⁾도 포함한다. 이때 담장은 방어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성곽 형태를 띠면서 궁성을 형성한다.³⁾

궁궐의 기능적 또는 단어적 해석과 별도로, 궁궐이 현재에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궁(古宮)이 궁궐을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고궁은 ‘옛날의 궁궐’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고궁이 오늘날에는 궁궐이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의 궁궐인 러시아의 크렘린궁, 영국의 윈저궁, 버킹엄궁 등은 오늘날에도 국가의 대표가 기거하며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궁이라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오늘날 서울에 남아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내에는 활동하거나 기거하지 않고 이에 따라 궁궐 본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궁궐과 구별하기 위해 고궁이 더 적합한 표기일 수 있다.⁴⁾

2) 과거에 방어 및 감시를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 높은 곳에 설치하여 주변 지역을 감시하고 적의 침입을 미리 알리는 역할

3) 임석재, 『예(禮)로 지은 경복궁 동양미학으로 읽다』, 인물과 사상사, 2015, p.120

4) 홍순민, 『홍순민의 한양 읽기 궁궐<상>』, ㈜놀와, 2017, p.90~p.94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조 국가가 형성되면 새로운 도읍지가 정해지고, 도읍지를 둘러싼 도성(都城) 안에 궁성(宮城)이 배치되었다. 한편, 궁성이 도성 계획의 일부로 건설되었던 반면에, 고궁은 지배층의 최고 정점인 군주가 거주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군주의 활동 공간인 고궁은 먼저 궁성으로 둘러싸이고 다음에 도성에 의해 다시 한번 둘러싸이는 배치구조를 가진다. 또한 고궁 내에 영건(營建) 되는 전각(殿閣)들은 군주가 가지는 권위와 군주가 지향하고자 했던 시대정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도록 배치되었다.⁵⁾

1392년 조선이 개국한 이래로 18세기까지 당시 조선을 주도한 유교적 통치 이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은 성리학(性理學)⁶⁾은 12세기 남송의 주희(朱熹)⁷⁾가 집대성한 유학의 주류 학파를 말한다. 유교적인 통치 이념으로서 성리학은 백성을 근본으로 하지만 군주를 권력의 핵심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모든 정치적 결정이 고궁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고궁은 유교 이념을 현실화하고 구현하는 중요 수단이었으며, 고궁 건물의 공간적 구조와 전각의 기능은 유교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유교적 통치 이념과 가치관은 고궁의 건축에서 예(禮) 정신을 구체화하는 예학(禮學)으로서 실현되었다. 구체적으로 예(禮)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善) 및 사회적 덕을 지향하도록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례(周禮)를 통해 사회질서를 위한 이상적인 국가 행정 조직 및 권한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군주와 사대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고궁도 주례의 규범에 따라 영건 되었다. 경복궁 창건 시, 주례의 규범을 통해 유교적 통치 이념이 반영되어 ‘주례’와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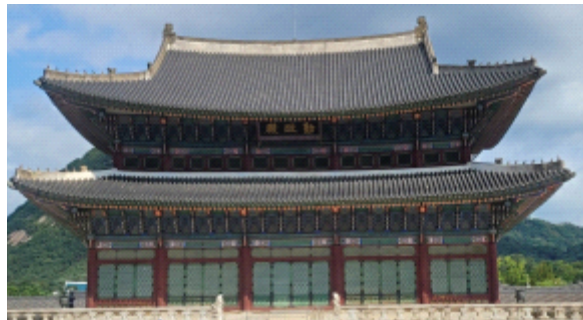
5) 본 문장의 ‘영건, 전각’이란 단어의 사용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용어보다, 시대의 가치관과 기술력을 담아낸 문화적, 사회적 의미로 해석한다. 이를 통하여,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단어 중 하나이다.

6) 단순히 정치 이념을 다루기 위한 문장이 아닌, 조선 사회의 모든 면에 걸쳐 깊게 뿌리내리며 시대정신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7) 중국 남송 시대의 유학자, 성리학 집대성, 동아시아 사상과 조선의 문화 사회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선경국전'의 이념을 실현하고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반영한 상징 형식이 경북궁이다.⁸⁾ 주례는 동아시아에서 고궁 건축을 포함하여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각 왕조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질서의 구축 세력들에게 '주례'는 이상 국가의 모범으로써 이용되어 건축 양식을 넘어 사회 제도, 의례, 윤리 등 국가 운영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었다.⁹⁾

조선 개국 시 왕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써 최초로 조성된 법궁은 경북궁이다. 조선의 고궁은 법궁과 이궁(離宮)을 바탕으로 한 조영체계를 가지며, 조영되는 시기의 정치적 또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용도를 달리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궁 및 이궁을 전제로 한 양궐 체계를 기초로 운영되었다. 주례의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 따른 법궁은 방형에 준하며 전각이 향하는 방향으로 삼문(三門)을 설치하고, 고궁의 노문 밖 좌측에는 종묘를, 우측에는 사직단을 배치하여 법궁의 자격을 가지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게 되며 일직선상으로 배치되는 전각들을 통해 위계질서와 공간의 통일성을 갖추게 된다.



<도판 1> 경북궁 근정전¹⁰⁾

<도판 2> 경북궁 근정전/ 필자 촬영

8) 이강근, 「기록 문화재를 통한 조선시대 미술의 도상 해석학적 연구 특집 : 조선(朝鮮) 전반기(前半期) 궁궐 건축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 미술학회, Vol.36, 2011, p.365-395

9) 임석재, 위의 책, p.475

① 경복궁의 역사

조선왕조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한 경복궁은 역사적 주요 사건들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시기들을 가진다.

첫 번째 시기는, 1392년 7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도읍인 한양에 경복궁을 창건하여 입궐한 1395년부터 정종이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고 태종이 즉위하면서 한양으로 환도한 1404년까지의 시기로서 경복궁의 한양 정착 과정에 해당한다. 고려의 무장이었던 이성계는 1394년(태조 3년)에 도읍을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천도를 결정하고 1394년 10월에 한양으로 천도했다. 1394년 12월부터 경복궁 창건을 시작해서 1395년 10월에 조선의 법궁(정궁)인 경복궁과 종묘를 완공했다. 건물이 왕궁된 후 태조는 정도전에게 전각의 명칭을 짓도록 하여 성리학적 경세관을 반영하여 중심 정전을 근정전(勤政殿), 침전을 강녕전(康寧殿), 사정전(思政殿)이라 하였다. 그러나 1398년 8월에 이방원이 이복동생인 방과를 죽이는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둘째 아들인 방과에게 태조는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으며, 방과는 제2대 정종으로 즉위하면서 경복궁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유로 1399년 천도를 단행한 지 5년 1399년에 수도를 개경으로 옮겼다. 1400년 개경 환도 다음 해에 조선의 제3대 왕인 태종은, 1404년 9월에 다시 한양으로 환도했지만, 태종은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을 새로 지어 이어 했다.

두 번째 시기는 태종을 거쳐 세종의 즉위 기간 경복궁 내에 전각들이 증각하고 임진왜란에 의해 전소되어 고종 즉위 전까지의 시기이다. 태종은 사실상 법궁인 경복궁을 기피하여 세종이 즉위한 1418년까지 경복궁은 무려

10) 출처: 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

<https://royal.khs.go.kr/ROYAL/contents/R101020000.do?schBdcode=gbg&pageType=story&bdProgramCode=storyCtg3#>

20년간 사용되지 못한 반면에 태종의 아들인 세종이 즉위하면서 경복궁은 다시 법궁으로 되었다. 태종 12년 1412년에 태종은 경복궁에서 열리는 연회를 위해 작은 연못이었던 경회루를 증축하였고, 세종은 경복궁으로 들어가며 여러 전각을 세우는 등 법궁인 경복궁을 확장하였다.¹¹⁾

선조 5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가 경복궁을 떠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경복궁은 완전히 전소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경복궁은 복원되지 못했다. 전쟁으로 모든 궁이 파괴되어 전쟁이 후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는 경운궁인 월산대군의 집에 머물렀고 이후에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을 복원했다. 그 이후로 조선의 왕들은 창덕궁을 정궁으로서 사용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 한 시기이다. 경복궁 복원은 전소된 후 273년이 지난 1865년(고종 2년)에 시작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로 추락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을 증건하여 공사 시작3년 만인 1868년(고종 5년) 6월에 경복궁을 증건했다. 그러나 1895년 10월 증건된 지 약 30년 뒤인 경복궁은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종은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관으로 들어가는 아관파천을 실행하며 더 이상 왕이 경복궁에 머물지 않았다. 1395년 태조 때 완공된 이후로 500년 만에 궁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했다. 다음 <표 1>에서 시기별 경복궁에서 발생한 사건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11) 김미혜, 「조선 후기 궁궐 단청문양의 브랜드 개발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16

시 기	연 도	발생 사건	비 고
제1기	1392년 (태조1년)	조선 개국	한양천도 결정 남쪽 오문(午門)을 정문(正門)으로 명칭변경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
	1394년 (태조3년)	한양천도 단행	
	1395년 (태조4년)	경복궁 창건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1398년 (태조7년)	정종즉위	
	1399년 (정종1년)	개경환도	
	1400년 (정종2년)	태종즉위	
제2기	1405년 (태종5년)	한양 환도, 정궁을 창덕궁(이궁)으로 변경	양궁 체제 운영 (법궁과 이궁)
	1425년 (세종8년)	정궁을 경복궁(법궁)으로 변경	
	1440년(세종22년)	교태전 창건	
	1592년(선조25년)	임진왜란, 경복궁 전소	
제3기	1865년 (고종2년)	경복궁 중건 시작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수정전 등 중건
	1868년 (고종5년)	경복궁 중건	
	1888년(고종25년)	교태전, 강령전 중건	
	1896년(고종33년)	아관파천	

<표 1> 경복궁 변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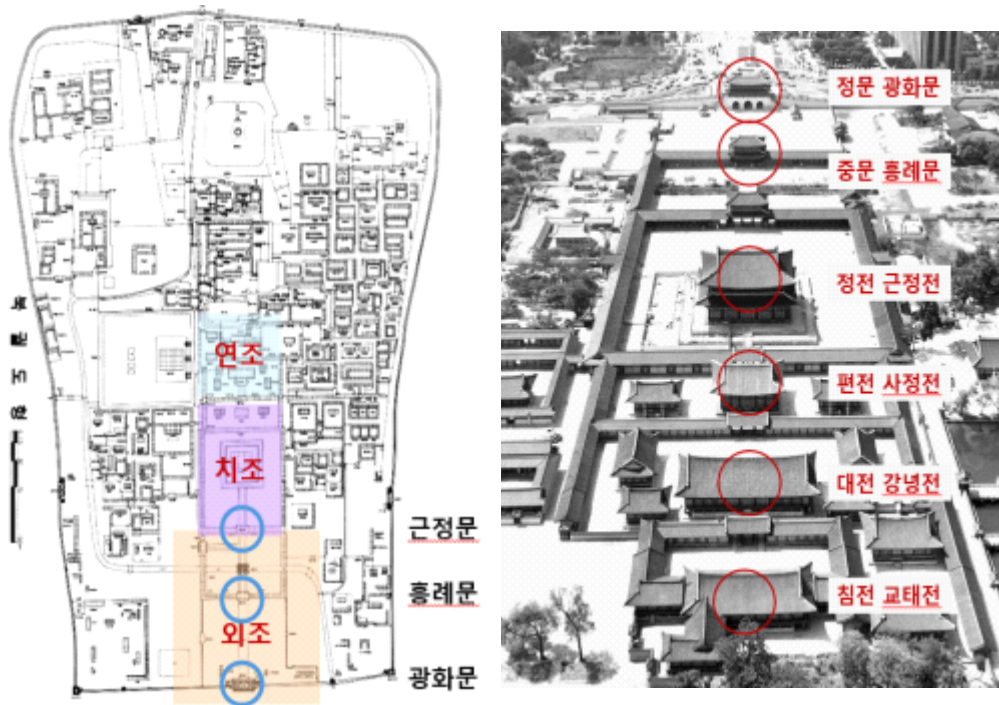
2) 고궁 건축 특징

① 경복궁의 배치와 문

동아시아 지역의 고궁은 중국 주나라 왕실의 관직 제도에 관한 주례의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 규정된 도성과 고궁의 조영 규범에 따라 조영되었다. 동관고공기는 좌묘우사(左廟右社), 면조후시(面朝後市), 전조후시(前朝後市)¹²⁾의 지침을 통해 도성 내에서 고궁의 배치 원리를 제시하였고, 전조후침(前朝後寢), 오문삼조(五門三朝)의 지침을 통해 고궁 내에서 전각의 배치 원리를 설명한다. 좌묘우사에 따라 도성 내에서 고궁을 중심으로 왼쪽에 종묘를 배치하고 오른쪽에 사직을 각각 배치하며, 면조후시에 따라 고궁의 앞쪽에 조정을, 뒤쪽에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市場)을 각각 배치하였다. 또한, 고궁을 출입하기 위한 문(門) 및 문(門)과 문 사이에 조(朝)라고 하는 마당 형태의 구역을 가져서 외국 사신을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인 외조, 신하들과 정사를 의논하기 위한 치조 및 왕의 일상생활을 위한 연조를 가진 오문삼조(五門三朝)의 배치구조를 형성한다. 각각의 공간을 통과하기 위한 문의 개수는 고궁에 기거하는 왕의 지위에 따라 오문 또는 삼문으로 정해졌다. 주례(周禮)에 영향을 준 “예기(禮記)”에서 왕궁 오문 및 제후삼문을 규정하기 때문에 중국의 왕을 위한 고궁은 5개의 문을 가진 반면에 제후를 위해 3개의 문을 가진 고궁이 조영되었다. 한편 중국이 중국의 제후국이라고 여긴 조선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삼문삼조의 배치형식을 채택하여 고궁을 조영했다. 모든 고궁은 궁의 정문(正門)을 가지며, 정문은 궁을 대표하는 문이어서 크고 화려한 형태를 가진다.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光化門)이다. 정문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중문(中門)이 위치한다. 경복궁의 흥례문(興禮

12) 도성의 주요시설을 배치하는 원칙

門)이 중문에 해당한다. 중문의 앞이나 뒤에 금천(禁川) 또는 명당수(明堂水)가 조성되어 고궁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금천을 건너는 다리인 금천교(禁川橋) 조성되며, 경복궁의 영제교(永濟橋)가 금천교에 해당한다. 정문과 중문, 금천교 등을 지나 북쪽으로 왕의 업무 공간인 외전(外殿)이 위치하고, 외전에서 왕은 공식적으로 신하들과 의식이나 연회 같은 행사를 치른다. 외전 중심에 정전(正殿) 혹은 법전(法殿)이 배치되고 경복궁의 근정전(勤政殿)이 정전에 해당한다. 왕의 즉위식, 외국 사신 영접 등 국가적인 큰 행사 때 사용되는 전각과 그 주변 공간을 정전이라 한다.



<도판 3> 경복궁 삼문삼조¹³⁾

<도판 4> 상공에서 바라본 경복궁 배치¹⁴⁾

13) 복궐도형 도면 출처: 국가유산청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② 조영 관념

여말선초(麗末鮮初) 태조 이성계가 신홍사대부와 함께 조선 개국을 주도함에 따라 신홍 사대부들은 그들의 사상적 기반인 성리학적 이상세계를 조선의 모습, 한양에 조영되는 고궁에도 실현하고자 했다. 당시 신홍사대부의 중심에 있었던 판삼사사 정도전(鄭道傳)은 태조의 명에 따라 고궁 및 여러 전각의 이름을 정하면서 고궁의 명칭이 왕의 위엄과 권위를 잘 드러나도록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새로 개국한 조선의 주도 세력은 고궁을 포함한 모든 사회제도에서 왕을 중심으로 왕의 권위와 위엄을 우선하고 여기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대사상은 종법적 사회제도를 추구한 조선에서 경복궁을 법궁으로 정하게 하고, 법궁의 요건을 통해 경복궁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상징적 건축으로 조영되었다. 질서를 통해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가진 고궁을 조영하기 위해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궁들은 기하학적 중심을 기준으로 가진 축선에 따라 전각들을 배치했다. 축선을 기준으로 배치된 전각들은 중앙 축과 좌우 대칭을 가지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법궁으로 채택된 경복궁은 정도전에 의해 주례의 규정에 따라 관념적 상징 체계로서 축선 개념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관념적 상징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경복궁은 남면위왕(南面爲王)과 삼문삼조를 근거로 중축선상에 전각들이 배치되어 법궁으로 조영되었다.

북궐도형의 전각 배치에 따르면 광화문 - 흥례문 - 근정문 - 근정전 - 사정전 - 강녕전 - 교태전이 중심 축선을 따라 삼문삼조의 전각배치를 형성하고 중심 축선을 기준으로 사정전 양측에 만춘전과 천추전이 배치되고 왼쪽에 동궁전, 자경전, 문소전이 배치되며 근정전과 사정전 왼쪽에 자선당과 비현각이 동궁의 핵심 건물로 위치한다. 교태전 왼쪽의 인지당, 자미당,

14) 경복궁 상공사진 출처: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30198>

청연루가 자경전의 핵심 건물을 이루며 교태전 오른쪽에 궐내 각사, 경회루, 함원전, 흠경각 등이 세워졌다. 또한 태원전, 문경전, 회안전, 선원전이제사 시설로서 추가되고 향원정 북쪽에 건청궁이 새로 건립되고 서재인 집옥채가 세워졌다. 삼문삼조로 대표되는 주례의 조영 양식에 따라 경복궁의 주요 전각과 대문들은 장방형의 대지로 조성된 경복궁 터에 고궁의 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해 배치된다. 이에 따라 정문으로 세워진 남쪽의 광화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이 차례로 일직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위치하며 교태전의 북측에 위치한 아미사는 북악산으로부터 뻗어 내려온 산줄기와 맞닿아 배치되므로 경복궁의 남북을 따라 매우 분명한 중축선이 형성된다. 아미사를 조영 시작점으로 설정한 일직선의 고궁 조영 원리는 조영 시작 단계부터 경복궁 터의 중앙에 아미사의 위치를 설정한 후에 주례 규범을 반영한 고궁 조영법을 구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풍수와 유교 사상이 절충된 건축으로 볼 수 있다. 중축선 배치가 뚜렷한 경복궁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는 한 개의 산 능선이 멈추는 아미산으로부터 교태전, 강녕전, 사정전 및 근정전까지 일원적 축선을 따라 주요 전각들의 정전 축을 형성한다.



<도판 5> 북궐도형¹⁵⁾과 경복궁 중심축

또한 경복궁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정전 축은 쉼내 각사 및 소규모 전각들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거나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기 위한 기준 축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아미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경복궁의 정전 축은 왕권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대칭적 전각 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궁은 왕의 권력과 왕권의 존엄,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해 최대한 웅장한 규모로 세워진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은 모든 전각을 질서정연하고 대칭적으로 창건하여 시대정신을 담아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배치를 하게 되었다.

경복궁 건축 특징	
대표 고궁	양궐 체제 중심의 성리학적 이상 국가 법궁(法宮) 경복궁(태조 4년, 1395년)
조영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고궁 (유교적) 주례동관고궁기
사상	삼문삼조, 군주남면/ 좌묘우사, 전조후시
전각 배치 양식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중심 축 근정전+사정전+강녕전 정전+편전+침전의 배치 축 왕의 권위와 위엄 & 통일성과 위계질서
풍수지리	북악산의 용맥이 강녕전(교태전)과 만나는 지점인 아미산(화계)을 기준점으로 중축선이 시작 된다

<표 2> 경복궁 건축 특징

15) 북궐도형 도면 출처: 국가유산청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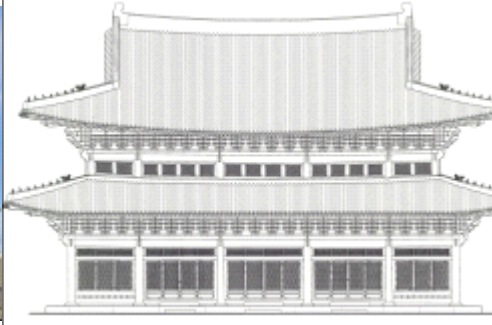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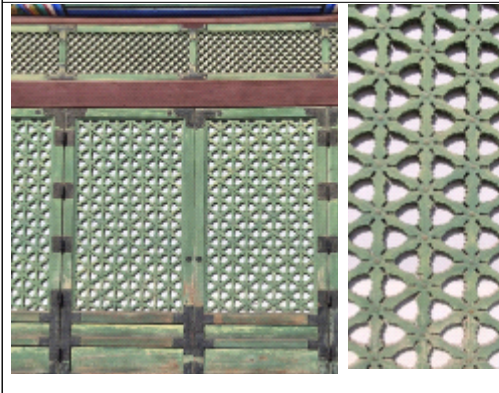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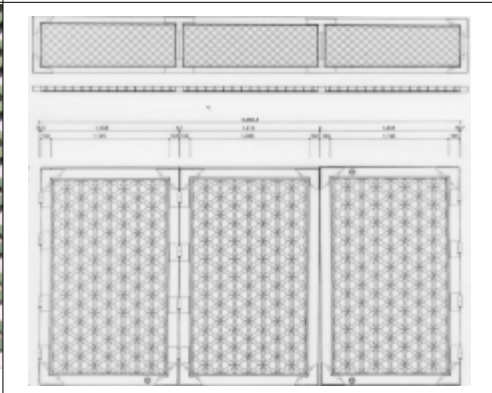
2.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

고궁 건축은 단순한 공간 구축을 넘어, 시대의 문화, 사상,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어 반영한다. 그 시대의 건축 문화특징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과거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된 전통문화이다. 앞서 연구한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경복궁은 주례를 기반한 조영적 특징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일직선적인 배치 그리고 주요 전각과 좌표우사, 전조 후시의 전각을 설명하였다. 각 전각의 벽면은 기둥과 보의 벽과 창으로 수직 수평 구조의 건축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 고궁의 창호는 창의 구조적 요소로서 구성하는 창틀과 장식적 요소로서의 창살로 조형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창호의 건축적 특징인 구조적 형태 분석을 통해 조형적 요소와 텍스타일 표현을 위한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고궁 창호의 구조적 형태

경복궁의 다양한 전각은 중심축의 근정전을 중심으로 하여 같은 축으로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흥복전의 전각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경회루와 향원전은 왕실에서 잔치를 베풀던 누각과 연못 중앙에 자리 잡은 정자로 경복궁의 대표 전각이다. 경복궁은 근정전과 사정전은 치조라 하여 임금이 장사를 보는 전각이며 강녕전과 교태전은 연조로 가족들이 기거한 전각이다. 신하들이 모여 국사를 논하는 외조로는 빈청, 정원, 당후 등과 같은 객사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복궁의 중심축인 근정전, 사정전, 교태전, 경회루, 향원정 중심으로 각 전각의 구조와 창호의 특징을 도면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추출한 형태를 비교 분석하고 함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근정전은 국가의 공적인 행사를 행하는 공간으로 왕이 여러 신하와 백성들을 만나는 정전(正殿)으로 이곳에서 신하들의 조하(朝賀)를 받거나 정령(政令)을 반포하였다. 2중으로 된 높은 월대 위에 정면 5칸, 측면 5칸의 2층 건물 근정전의 내부는 통층으로 건축되었다. 지붕은 2층 팔작지붕이며 1, 2층은 창호로 벽 없이 꾸며진 경복궁의 대표 전각이다. 전각은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정면과 좌우 측면등 사면 모두는 벽체 없이 창호로 되어 있으며 1층 창호는 꽃살창으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 광창으로 빗살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p>근정전 전경/ 필자 촬영</p>	<p>근정전 평면도¹⁶⁾</p>
	
<p>근정전 창호/ 필자 촬영</p>	<p>근정전 창호 상세도¹⁷⁾</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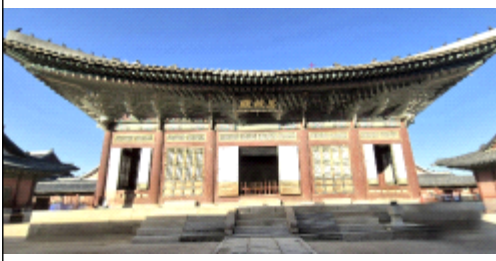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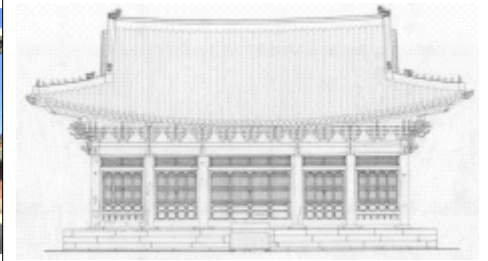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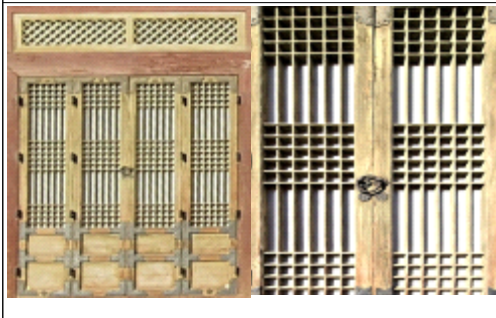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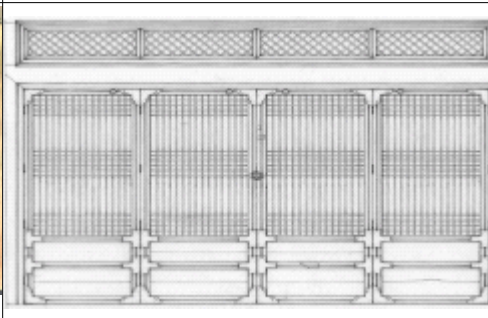
<표 3> 경복궁 근정전과 도면

16)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근정전 평면도

17)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근정전 창호 상세도

전각의 창호는 경복궁에서 가장 화려한 창살로 명칭은 세모솜을 빗꽃살이다. 세모솜을 빗꽃살은 세모솜을 빗살대에 관념적인 꽃의 모양을 조각하여 살대를 짠 창살이다. 살이 겹치는 중간에는 금속 못을 사용하여 장식성과 견고성을 주었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교창으로 되어 있다. 전각 내부는 창호로 들어오는 빛과 함께 살대 그림자가 비침으로써 정적이고 위엄 있는 공간이 된다.

사정전은 근정전과 같은 축선 상에 놓여있는 정궁의 편전으로, 왕이 일상 업무를 보던 집무소로 정전과 사정전을 합하여 치조라 한다. 다포 팔작지붕을 한 전각으로 기단의 높이는 비교적 높고 정면 5칸, 측면 3칸의 전각이다.

	
<p>사정전 전경/ 필자 촬영</p>	<p>사정전 북측면도¹⁸⁾</p>
	
<p>사정전 창호/ 필자 촬영</p>	<p>사정전 창호 상세도¹⁹⁾</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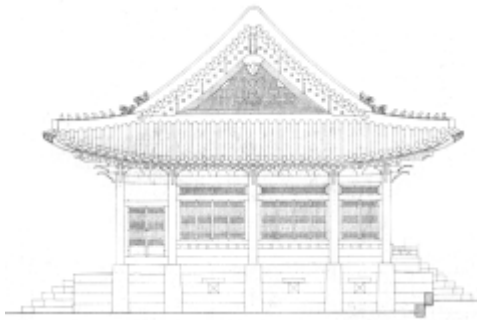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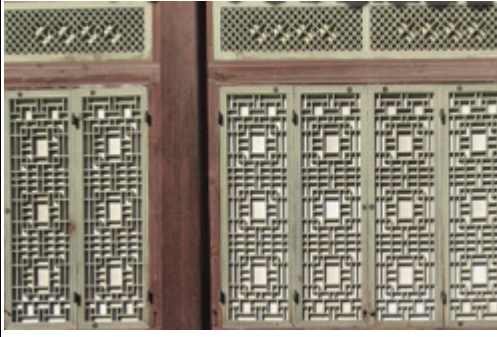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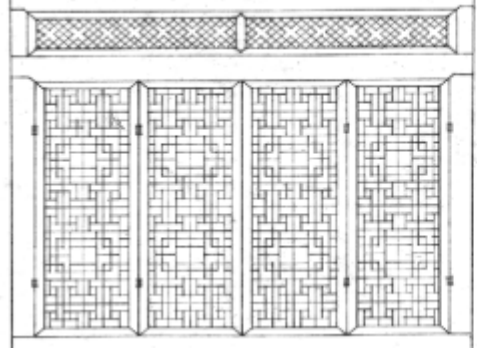
<표 4> 경복궁 사정전과 도면

18)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사정전 북측면도

19)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사정전 창호 상세도

사정전의 문과 창은 칸마다 폭들이 차이가 있어 각 칸에 따라 창호 위에 긴장방향의 교창을 달았다. 우측 온돌방 전면, 툇마루에는 띠살과 아자살로 되어있다

교태전은 강녕전의 북쪽에 위치한 왕후의 침전으로 삼조의 마지막 전각이다. 정면 9칸, 측면 4칸의 1층으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교태전의 건축적 특징은 용마루가 없는 지붕으로 앉아야 할 때는 앉는 자세가 있고 서야 할 때는 서는 자세가 있다는 뜻의 ‘좌유좌기 참유참양’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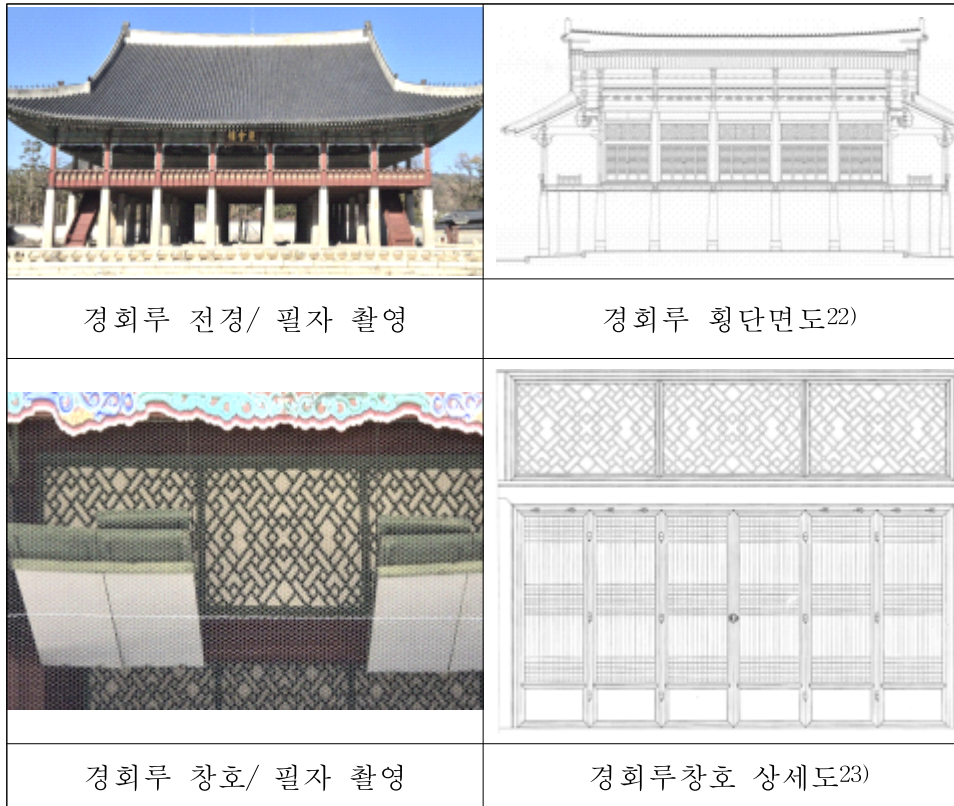
	
<p>교태전 전경/ 필자 촬영</p>	<p>교태전 우측면도²⁰⁾</p>
	
<p>교태전 창호/ 필자 촬영</p>	<p>교태전 창호 상세도²¹⁾</p>

<표 5> 경북궁 교태전과 도면

20)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교태전 우측면도

21)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사정전 창호 상세도

하늘로 치솟는 기운을 상징하는 용마루는 침전의 누워서 자는 자세와 맞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이다.²⁴⁾ 여성공간으로 강녕전의 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교태전은 창호 형태 역시 강녕전과 같은 완자살 창호와 띠살, 빗살 창호로 이루어져 있다.



<표 6> 경복궁 경회루와 도면

경회루는 태조 때 정자의 자리이다. 태종 12년에 경회루를 새로 건립하였으며 2층으로 된 35칸으로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이다. 현재 국보 제224호인 경회루는 임진왜란 시기 완전히 소실된 후 27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다

22)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경회루 횡단면도

23)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경회루창호 상세도

24) 임석재, 위의 책, p.850

가 고종시기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1867년 중건하였다. 경회루 창호는 띠살 창호와, 완자살 창호를 달았다.

향원정은 경복궁 북쪽 후원 향원지 내의 가운데 섬 위에 정육각형의 중층으로 건립된 정자이다. 육각형의 초석을 놓고 장대석으로 낮게 기단을 쌓았으며 겹처마 육모지붕과 익공, 헛침차 등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p>향원정 전경/ 필자 촬영</p>	<p>향원정 우측면도 25)</p>
	
<p>향원정 창호/ 필자 촬영</p>	<p>향원정 창호 상세도26)</p>

<표 7> 경복궁 향원정과 도면

25)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향원정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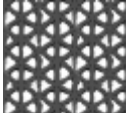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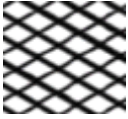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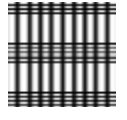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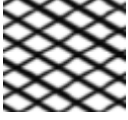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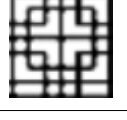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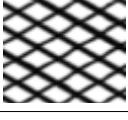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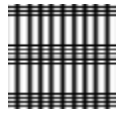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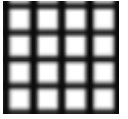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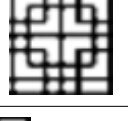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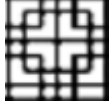
26)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향원정 창호 상세도

정자 1층, 2층 육각형으로 모두 되어 있고, 아자살 창호를 달았다. 향원정의 화려한 아자살과 창방 밑의 화려한 꽃무늬는 자연과 조화로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외 강녕전은 교태전과 같은 창살인 완자살, 빗살, 띠살, 정자살로 구성되었으며 흥복전은 띠살, 정자살, 빗살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경복궁 주요 전각의 창호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빗살, 띠살, 정자살, 완자살 등이 설치되었으며, 근정전에만 세모속을 빗꽃살이 쓰였다.

경복궁의 주요 전각에 사용된 창살문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역	조사장소	창살 문양 이름	창살 문양 도면	
외조	근정전	세모속을 빗꽃살, 빗살		
치조	사정전	띠살, 빗살		
연조	강녕전 교태전	완자살, 빗살, 띠살, 정자살		
				
누각	경회루	띠살, 완자살		
전각	향원정	완자살		

<표 8> 경복궁 권역 전각별 창살의 종류

2) 고궁 창호의 조형적 요소와 텍스타일 적용성

창은 빛을 들이기 위해 만든 창(窓)과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드는 문인 호(戶),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창호'라고 부른다.²⁷⁾ 한국의 창호는 건물 내부의 채광과 통풍의 기능의 창(窓)과 안과 밖의 출입하는 문(門)의 구조로 된 서양의 창과 문의 뚜렷한 구분과 달리 전통적인 한국의 창과 문은 뚜렷한 구분을 주지 않는다.²⁸⁾ 건축에 있어 중요한 창과 문은 내부 공간과 외부공간을 구별하는 단어이며, 외부와 내부를 드나들 수 있는 창호는 고궁에서 창문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건물 안팎을 연결하고 빛과 공기를 드나들게 하는 모든 개구부를 가리키는 단어이며, 창호의 틀에 살을 넣어 완성하게 되면 창살을 가리킨다. 전통 창호는 개폐 방식과 재료 그리고 설치 위치,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다르며, 장소와 구조, 기능, 창살의 문양 등에 따라도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살대 짜임 형식으로 형성되는 창살 문양은 사용된 문양 이름에 따라 다르게 붙여진다.

창틀과 창살의 구조로 분리되는 전통 창호의 창살은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상징으로 장생불사, 다복 등의 염원하는 길상(吉祥) 의미와 장식적인 요소로서 구성미와 여백의 아름다운 다양한 무늬의 조형미를 담고 있다. 수직과 수평, 사선의 교차로 구성된 창살은 창의 조형적 요소로서 규칙적인 반복성에 의해 기하학적 무늬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차된 선에 의해 생성된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등의 조형 요소를 창살의 반복을 통해서 확장된 기하학적 추상미를 표현하고 있다. 건물에 다는 창호는 대부분이 살창으로 뼈대가 되는 틀인 울거미 속에 얇은 살대를 짜서 만든 창호를 말한다. 앞서 조사한 경복궁 살창의 문양은 세모속을 빗꽃살, 띠살, 빗살, 정자살, 완자살 종류로 각 창살의 조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27) 장기인, 『한국 건축 대계 I:창호』, 보성각, 2000, p.9

28)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p.10~p.11

띠살은 수직의 울거미 안에 세로 살을 촘촘히 채우고, 상, 중, 하 세 곳에 가로 살을 교차시켜 만든 창살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상대와 하대에 각각 4개, 중대에 5개의 가로 살을 배치하고, 세로 살은 11개 정도를 사용하여 균형미를 갖춘다. 촘촘한 세로 살은 건물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가로 살은 균형미를 더하여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정갈한 느낌을 준다.

용자살은 넓은 공간감과 개방성을 가진다. 넓은 창호지 면적을 통해 풍부한 채광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살대의 굵기와 간격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살 2~3개, 동살 3~4개 정도로 구성된 용자 살 창호는 시원하고 깔끔한 비례감을 가진다. 살의 개수를 늘리거나 동살을 겹쳐 사용하는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정자살은 수직과 수평의 살대가 정확하게 교차하여 우물 정(井)자 모양을 이루는 구조로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단아하고 정갈한 느낌을 준다. 정자살은 띠 살과 함께 전통 창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띠살이 가로줄을 중심으로 한 간결한 디자인이라면, 정자살은 가로와 세로의 조화를 통해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바둑판처럼 가로와 세로의 살대가 정교하게 교차하며 만들어진 창살로 균일한 간격과 반복되는 패턴이 만들어내는 리듬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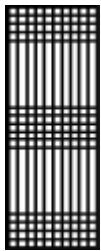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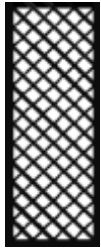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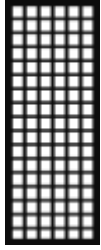
빗살은 수직과 수평의 살이 45도와 135도 각도로 교차하며 마름모꼴을 이루는 정교한 구조를 가진 창호이다. 이러한 구조는 뛰어난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출입문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의 교창이나 불발기에도 사용된다. 빗살 창호는 규칙적인 패턴과 마름모꼴의 반복되는 조형미는 공간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며, 견고한 구조는 안정감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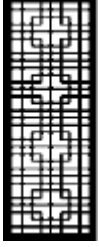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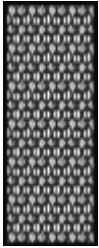
완자살은 사각형의 네 귀퉁이를 다른 사각형의 변으로 물려 놓은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완자살의 형태이다. 불교의 상징 문자인 '만(卍)'자에서 유래된 전통 창살 문양으로 '만(卍)'자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우주의 질서와 길상

을 상징하듯, 완자 살 역시 생동감 넘치는 기운과 함께 행복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각형의 크기와 비율을 달리하거나, 살대의 굵기를 조절하여 변화를 줄 수 있다.

세모솓을빋살은 30도, 13도, 90도 방향으로 빋살 모양의 살 짜임에 수직의 세로 살을 넣어 만든 창호로 작은 삼각형의 반복과 육각형이 겹치면서 문살의 변화를 줄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전각의 창호 특징에서 나오는 기하학적 추상요소를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종류	문양	특징	기하학적 추상
띠살		춤춤한 수직의 세로 살 상, 중, 하 세 부분의 가로 교차 살 단아하고 정갈함	점, 선, 면 수직, 수평의 면분할 반복미 균형미 사각형
빋살		45도, 135도의 기울어진 살대교차 뛰어난 강도를 가진 구조 사선의 속도감 규칙적인 패턴	점, 선, 면 마름모 속도감 질서와 조화
정자살		수직수평의 교차로 정(井)자 모양을 이루는 구조 규칙적인 방법을 통한 안정감 균일한간격의 반복패턴의 리듬감	점, 선, 면 수직수평의 면분할 반복, 확장

완자살		<p>만(卍)의 창살형태의 반복 생동감 사각형의 크기와 비율, 살대의 굵기에 의한 변화가능</p>	<p>점, 선, 면 사각형의 반복 확장</p>
세모 솟을 빗꽃살		<p>30도, 13도, 90도 방향의 사서살과 직선살 작은 삼각형의 반복과 육각형으로 인한 문살의 변화</p>	<p>점, 선, 면 중첩 반복과 확장</p>

< 표 9> 주요 전각의 창호 특징과 기하학적 추상요소

Ⅲ.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

1. K-Culture의 확산과 전통미

1) K-Culture와 한류

어떤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용어는 단순한 명칭을 넘어, 해당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문화적 코드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 현상의 경우, 그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해당 문화 현상의 의미와 파급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시작하는 ‘K-Culture’ 용어의 시작은 ‘한류(the Korean Wave)’에서 시작한다. ‘한류’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드라마, K-pop,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었으며,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한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박장순(2012)²⁹⁾,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2012)³⁰⁾에서는 ‘한류’라는 단어는 중국의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장규수(2011)³¹⁾는 1999년 한국문화부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배포한 음반<韓流-SongfromKorea>에서 공식적인 사용을 언급하였으며 최현철(2021)³²⁾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합성 신조어라고 언급하였

29) 박장순. 「한류의 생성 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17

30) 위택환. 한류.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12, p.81

31) 장규수(Gyu-Soo Jang).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9, 2011, p.166

다. 우리가 “한류”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둘러싼 의견은 대중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공통으로 1990년대 후반 중국 매체에서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인기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후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류’라는 용어의 ‘한(韓)’은 한국의 국가명이며, ‘류(流)’는 물결 또는 흐름이라는 현재성을 내포하는 단어로 한국에서 발현된 새로운 문화 흐름이라는 의미로 외국에서 타 문화권의 문화 현상을 표현한 용어로 단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³³⁾ 지속적인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향상을 통해 세계인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K-POP은 한류를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플래시몹이나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현상을 통해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³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은 ‘한류 : K-pop에서 K-culture로’ 보고서에서 1990년대 초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2000년대 K-Pop을 넘어 2010년대에는 K-Culture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90년대 말 아시아권 국가들의 한국 드라마 열풍 이후, 전 세계에 K-pop 등 대중문화 콘텐츠들에 대한 인기 급상승하면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전 세계와의 실시간 직접 소통을 통해 해외 한류 콘텐츠 소비층과의 접촉 확대되며 방탄소년단(BTS), 기생충 등 세계적인 한류 상품의 등장으로 한류 확산의 새로운 계기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신(新)한류 진흥 정책’을 발표하고 ‘K-Culture’를

32) 최현철, 「한류 4.0, 신(新)한류는 어떤 대중문화인가?: D. 닛슨의 대중문화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No.11, 2021, p.254

33) 고영란, 김경숙, 박영목, 박인석, 최순희. 「한류(韓流)로부터 디자인 ‘한류(韓類)’로」,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310 - p.311

34) 장우준. 「한류진과 활성화를 위한 요인분석」,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p.32

‘신한류’의 영문명칭 겸 정부가 권장하는 국제 홍보브랜드임을 공식적으로 기재 하였다. 즉, 정부의 정책 담론에서 K-Culture는 신 한류를 지칭하는 용어이자 한류의 국가브랜드로 개념화된 것이다. 기존의 한류를 넘어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산하고, 한류 콘텐츠 기반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단순히 K-pop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한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표 2>에서는 한류에서 시작된 용어가 K-Culture로 변화된 시기, 특징, 장르, 대상 국가를 나타낸 표이다.

	한류 1	한류 2	한류 3	K-Culture 신 한류
시기	1997년~2000 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2010년 대 초반	2010년대 초반 ~ 2019년	2020년~
특징	한류 태동 영상콘텐츠 중심	한류 확산 아이돌스타 중심	한류 다국화 세계적 스타 등장	한류 다양화+다국화 온라인 소통
장르	드라마, 영화, 가요	대중음악, 대중문화 일부	전통문화, 문화예술, 대중문화	대중문화 + 연관 산업
대상 국가	아시아	아시아, 중남미, 중동, 미국일부	전 세계	전 세계 (전략적 확산)

<표 10> 한류의 시기별 단계³⁵⁾

35) 문화체육관광부 「‘신(新)’한류 진흥정책보고서」, 2022

2) K-Culture와 텍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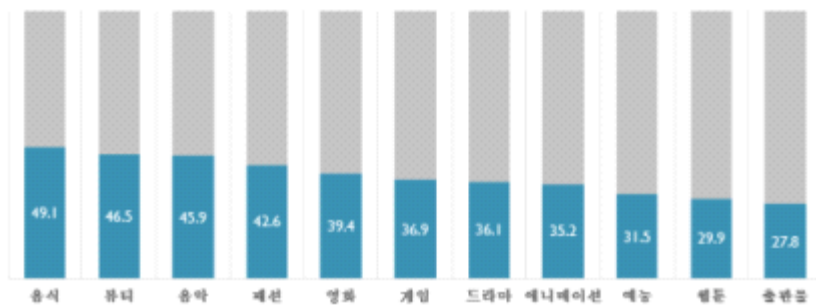
한국의 패션산업은 콘텐츠산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와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스타들이 국제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착용하는 옷·헤어스타일·액세서리 등은 SNS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관심을 일으키면서 한류 스타의 스타일을 모방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 중 2012년 문화산업 수출액이 1980년부터 시작한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수입액을 추월하여 8,55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창의적 융합을 중시하는 ‘문화중심의 창조경제’가 부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결과, 2022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전년도(124억 5,000만 달러(약 16조 3,200억 원) 대비 6.3% 증가한 132억 4,000만 달러(약 17조 3,500억 원)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면서, 한류와 연계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산업의 성장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³⁶⁾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국제문화교류 진흥원은 해외 주요 26개국 25,000명의 조사 국가와 조사 대상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이용 현황과 확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기준으로 조사한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조사 결과인 <표 11>을 살펴보면 드라마, 음악, 패션 등의 11개 콘텐츠 중 패션의 인기도는 4번째로 높았다. 한국 패션 상품은 한류 콘텐츠에 열광하는 팬들이 구매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 하였다. 2023년 세계적인 패션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 오브 패션》이 선정한 ‘BoF 500’에 뉴진스와 방탄소년단이 이름을 올리며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진 것은 이러한 현상을 단

36)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4

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뉴진스 멤버 전원은 샤넬, 구찌 등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방탄소년단 역시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그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이 외에도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 수많은 한류 스타들이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하며 K-팝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류 콘텐츠’는 ‘K-콘텐츠’로의 도약 가능성과 확대 가능성을 보이며 한류에서의 ‘K’에 관련한 한국 고유문화가 담긴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도³⁷⁾

한류 콘텐츠를 선호하는 열기가 가열되면서 패션계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이 점차 증가하면서 2021년에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열기가 의류 제품 구매로 이어지면서 ‘오징어 게임 의상(Squid Game Costume)’이 2021년 10월 미국 아마존 전체 검색 순위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한류 콘텐츠와 패션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³⁸⁾ 한류 열풍의 확산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생활 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전통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실

37) 문화체육관광부,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보고서」, 2023

3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생활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에서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한 연구 진행은 계속되어 왔다. 과거에는 일상복으로 널리 착용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주로 의례적인 자리에서 착용하는 의복으로 자리매김 한복은 실용성을 강조한 개량 한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최근 들어 K-팝, 사극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복이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블랙핑크’는 2020년 신곡 뮤직비디오 <도판 2>에서 보이는 김단하 한복 디자이너의 <봉황문 인문보>에서 영감을 받은 문양과 색감을 활용한 한복 의상을 착용하였다.³⁹⁾ 또한,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구찌’는 2024년 한국의 국보 제223호인 경복궁에서 근정전과 회랑을 반짝이는 조명과 함께 북소리를 시작으로 한국의 헤리티지와 현대 패션을 결합한 올드 & 뉴의 결합인 2024 크루즈 컬렉션을 선보였다.⁴⁰⁾



<도판 6> 블랙핑크의 한복패션⁴¹⁾



<도판 7> 경복궁 근정전
2024 구찌 크루즈 컬렉션⁴²⁾

39) 정민희. 「K-Culture 이미지 분석을 통한 텍스타일 디자인 트렌드 정보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p.83

40) 출처: <https://www.fi.co.kr/main/view.asp?idx=79188>

41)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62556>

42) 출처: <https://www.fi.co.kr/main/view.asp?idx=79188>

수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해 온 한국 패션 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한류의 영향력이 여전하지만 패션 산업은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에 비해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이며 ‘콘텐츠 경쟁력 저하와 다양성 부재’로 패션산업의 수출실적은 과거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 감소세로 전환됐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힘입은 ‘메이드인 코리아’의 지지를 받았던 중소 패션 브랜드 수출액 감소, 전체 의류 산업 수출도 감소 추세이나 2023년 8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 추세로 전환돼 하반기 수출이 반등했고 전체 중소기업 수출 감소 폭이 완화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⁴³⁾ 다음 <표 12>는 2023년 중소기업 수출 동향의 2023년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이다.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증감률
1	화장품	242.7	319.3	31.6
2	의류	91.7	75.1	-18.1
3	문구 및 완구	23.0	54.0	135.3
4	컴퓨터	46.7	53.5	14.7
5	음향 기기	68.3	42.5	-37.7

<표 12> 2023년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⁴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품목 2위라는 위상은 패션산업이 중요한 한류 연관 소비재로서 갖는 면모이자 패션 한류라는 이름에 걸맞은 성과다. 하지만 높

43) 김아영. 「2023 한류 백서」, 서울: KOFICE, 2024.

44)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2024, p.4

은 순위의 위상과는 달리 의류 온라인 수출은 2022년 대비 18.1%나 감소세를 보여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이 가시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구체적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이다.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이다. 그는 ‘문화사업’이 21세기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프랑스의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은 한국은 세계에 한국적 이미지의 상품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문화의 위기라고 언급하였다. 한류를 문화적 조류나 열풍의 시각보다는 문화적인 사업의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학술적 탐구와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실용화 연구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학문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6대 중점과제 발표에서 K-컬처를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다양한 K-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과거 미적 아름다움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 디자인산업은 이제 인간, 사회, 환경,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진화하였다. 특히 K-디자인은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인과 소통하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K-디자인은 단순한 제품 디자인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하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K-디자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K-브랜드와 텍스타일 재구성

패션 문화상품은 K-Culture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분야의 아이덴티티 전략적으로 내세운 국내 브랜드에 관한 연구로 한국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시곰’과 ‘미미달’ 브랜드를 조사하였다.

1) 다시곰 (Darcygom)

다시곰 브랜드는 순우리말로 2017년 런칭 된 모던 한복 브랜드다. 브랜드 모토는 ‘한국 전통과 지속 가능한 패션의 만남’으로 버려지는 것과 옛것에 초점을 한국의 전통 요소인 전통 탈, 문양, 오방색, 학을 모티브로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다시곰’은 2024년 해외 미술관과 협력하여 한국 문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확장하였다.



<도판 8> 다시곰 패션⁴⁵⁾

45) 출처: <https://www.instagram.com/darcygom>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은 이 브랜드의 '색동'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 제작을 제안하며 협업을 시작했고, 이후 영국 V & A 박물관과 국립 중앙박물관에도 입점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⁴⁶⁾ 다시곰의 대표적인 디자인 색동은 다양한 색깔의 형걸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것으로, 주로 아이들의 옷이나 복식 장식에 사용되었다. '색동'이라는 말은 '색을 동 달았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한 칸씩 이어 붙여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 시대에 사용한 대표 색채 배색인 오방색을 중심으로 청, 적, 황, 백, 흑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색채의 조화와 의미를 디자인에 담았다. 한국 전통 색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현대에도 색동의 가치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디자인을 다시곰은 담아내고 있다.

다시곰 브랜드는 의류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색동 문양을 활용한 스니커즈, 가방, 파우치와 환경과 사회, 경제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 하는 업사이클링 패션 상품도 제작한다.



<도판 9> 다시곰의 액세서리 제품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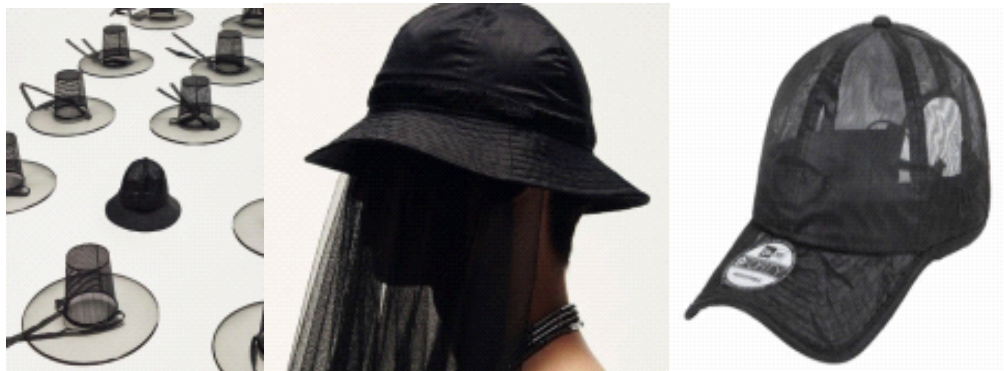
46) 출처: <http://www.apparelnews.co.kr>

47) 출처: https://www.instagram.com/p/BfyHmtGF2eT/?img_index=1

<도판 9>는 전통과 재활용을 패션 액세서리로 제작하여 없어질 위기에 있는 전통 방식의 색동 원단과 갓 모양의 솔더백을 디자인하여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담아내었다.

2) 이세 (IISE)

2018년 삼성물산의 제2회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 후원 프로그램 ‘sdfd(스플에스에프디에프)’에서 대상을 받은 ‘이세’는 한국의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패션에 접목시켜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이다. 특히 한복, 전통 문양, 건축 요소 등을 활용하여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제품에 담아내었다. 전통 공예 장인들과 협업하여 전통 공예 기법을 현대적인 디자인에 접목. 이를 통해 전통 공예 기법을 보존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도판 10> 이세 IISE 패션 소품⁴⁸⁾

48) 출처: <https://blog.naver.com/designpress2016/222080253029>

이세의 스타일은 스트리트 웨어로, 다른 브랜드와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를 진행하여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다. 2020년 뉴에라와 협업하여 한국 전통의 ‘갓’을 모티브로 한 캡슐 컬렉션을 출시하였다. 전통적인 ‘갓’의 느낌과 현대의 스트리트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옛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이 ‘빛과 바람이 통하는 모자’라고 묘사한 어구를 인용하여 디자인하였다.⁴⁹⁾ 전통 갓은 단순한 모자를 넘어 조선시대 양반들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갓은 품격과 예절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며,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갓의 종류와 재질, 장식 등에 따라 신분과 지위를 구분하였고 고급스러운 소재와 정교한 장식으로 만들어 한국 문화의 상징적인 요소 중 하나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브랜드 이세는 헤리티지, 창조성, 문화 그리고 실행을 키워드로 하여 한국 문화는 과거를 이루는 요소와 현재에서 얻은 영감을 결합한 행위를 통해 미래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

3) 미미달 (Mimidar)

미미달은 한국 전통에 현대적 쓰임을 더한 전통 제품으로 ‘2020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국무총리상 수상’, ‘2020 서울 상징 관광 기념품 공모전 수상’한 브랜드다.⁵⁰⁾ 미미달 브랜드는 2019년 출시 이후 전통적인 모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라인으로 단순화하여 단청의 화려한 색상인 전통 색상을 그대로 활용하며 동시에 청자의 은은한 비취빛, 청화 백자의 색상 배색을 주요 색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이다. 고려청자, 운학문, 일월오봉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의 아름

49) 출처: <https://blog.naver.com/designpress2016/222080253029>

50) <https://www.kculture.or.kr/brd/board/890/L/menu/898?brdType=R&bbIdx=14078>

다음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하였으며 전통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 또한, 한국적인 색감을 활용하여 제품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주었다.



<도판 11> 전통문양과 색채를 활용 미미달⁵¹⁾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하며, 단순히 과거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석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되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미미달의 디자인은 전통 문양과 색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였으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하여 소비자와 소통하고 이야기 담아내었다.

51) 출처: <https://www.kculture.or.kr/brd/board/890/L/menu/898?brdType=R&bbIdx=14078>

3. 텍스타일의 다양성

텍스타일 디자인은 옷감, 직물 등 다양한 섬유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분야이며, 단순히 옷감의 색상과 무늬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섬유의 조직, 짜임, 가공 방식 등을 통해 다양한 표현 기법을 구현하여 섬유 제작 기술과 디자인 감각을 결합하여 예술적인 표현을 구현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텍스타일디자인 기획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텍스타일 디자인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며 트렌드 정보 리서치는 디자인 개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첫째, 작품 제작에 앞서 한국 전통 텍스타일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현대 텍스타일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박서보 작가와 루이뷔통, 그리고 하종현 작가와 디올의 콜라보레이션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문화상품 개발 방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 텍스타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앞서 연구한 고궁 창호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조형 특징을 연구하여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 텍스타일시장에 발맞춰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재해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디자인 문화상품 개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아트와 텍스타일 : 박서보, 하종현

정부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 가치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로써 한류 디자인문화의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전략으로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콘텐츠(contents), 창의성(creativity), 문화(culture)의 조화, 10대 핵심과제 및 동북아 관광 허브로의 도약 등을 위한 수용 태세 개선, 정부의 역할 재정립, 블루오션 전략 등에 관한 발전계획을 시도하였다.⁵²⁾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텍스타일 산업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디자인, 건축, 미술 분야까지 그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2022년 런던에서 개최된 코리안 페스티벌과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의 한류 전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입증하였으며 글로벌 패션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샤넬, 루이 비통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은 한국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루이 비통이 2022년 루이비통 메종 서울에서 <아티카튀신(ArtyCapucines)> 프레젠테이션에서 박서보 작가와의 협업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2024 디올은 하종현 작가의 작품으로 디올 레이디백(Dior Lady Art by Ha Chong-Hyun)작품을 선보였다.

박서보 특유의 단순하지만 오묘하고 신비로운 묘법(Ecriture) 시리즈 중 2016년 작품을 기반으로 하여 루이비통의 아티카튀신 백에 그의 작품을 담아냈다. 태양에 강렬한 붉은색과 골짜기 모습의 자연의 위대함을 입체적으로 재질감을 표현하였다.

52)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main/getMainForm.do>



<도판 12 > 2022 루이뷔통 박서보 화백의 아티카튀신⁵³⁾

박서보 작가는 초기에는 주로 연필을 사용하여 캔버스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지, 아크릴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한지는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전통 재료로, 한지의 질감과 색채를 활용하여 작품에 깊이를 더하였다. 한지의 특성상 붓이나 칼로 긁어낼 때 나타나는 불규칙한 표면은 자연의 질감을 연상시키며, 작가의 행위와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단색화 작가 중 하종현 작가는 '접합'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통해 마대 위에 아크릴 물감을 덧칠하고 긁어내는 반복적인 작업 과정으로 삶의 흔적과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강렬하고도 서정적인 그의 작품들은 거친 마대 위에 아크릴 물감을 덧칠하고 긁어내는 반복적인 작업 과정과 질감, 물감의 흔적이 뒤엉키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표면을 살려 시간의 흐름 속에 생겨난 과정을 겹침과 겹침으로 완성하여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생명력은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

53)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756168&memberNo=36301288&vType=VERTICAL>

르는 기운을 연상시키며, 우주와 자연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박서보 작가와 하종현 작가 작품의 표면에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깊이가 응축되어 지층처럼 겹겹이 쌓인 흔적과, 무한한 우주 공간을 연상시키는 깊이감은 관람자의 시선으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



<도판 13> 2024 크리스찬 디올 하종현 작품 ‘접합’ 시리즈⁵⁴⁾

한국적인 소재인 한지와 마대를 사용한 작품들은 명품의 디자인에 접목시킨 점은 동양과 서양의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자인 세계를 보여 준다. 이는 한국 고유의 디자인을 담아낸 재료와 브랜드의 콜라보는 K-Culture에서 한국적인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기하학적 구조와 텍스타일: 프랭크 스텔라

앞서 연구한 고궁은 범궁으로써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구조로 왕의 권

54)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192581&memberNo=24386473&vType=VERTICAL>

위와 위엄을 보여주었다. 고궁의 법궁의 전각 배치에서 오는 선은 전각의 반복적인 배치에서 일어난 움직임으로 일차적인 점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각 배치를 연결하는 선은 이차적인 조형⁵⁵⁾의 산물이다. 기본적인 기하학 요소인 점, 선, 면을 배치도에서 나타난 직선·대칭·반복의 조합은 다층적인 공간⁵⁶⁾과 조형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고궁의 화려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근정전과 고궁의 전각들은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교량이다.⁵⁷⁾ 이런 지속적인 연결성을 가진 한국 전통 문화유산인 경복궁 근정전 역사의 재해석을 시작으로 전각들을 이루는 창·문살·기와의 조형성과 기하학의 구조에 대한 선행 작가작품을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기하학은 공간과 형태에 대한 수학적 연구를 위하여 점, 선, 면 등의 요소들을 통해 공간 속에서 도형의 크기, 성질, 위치 등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시작하였다. 기하학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시작된 학문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유클리드⁵⁸⁾에 의해 체계화 하였으며 유클리드의 ‘원리’는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며 현대 과학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우주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한 학문이다. 기하학은 디자인의 기본적인 조형언어 중 하나로 점, 선, 면과 같은 요소는 정사각, 직사각, 원등의 형태로 시각적 조형미를 만들어낸다. 구조와 질서를 부여하는 기하학은 정확한 비율을 통하여 안정감 있고 조화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으며 복잡하고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본질적인 형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구조는 디자인의 통일성을 부여하며 간결하면서 뚜렷한 구조는 현대적인 시각적이고 미적인 관점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작품 자체에 집중시키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미니멀리즘 작품 특징에서 잘 보여 준다

55) Kandinsky, Wassily. 『점.선.면』, 열화당, 2019, p.47

56) 다층적 구조‘는 그림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졌다는 시각적의미를 넘어, 관람객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57) 이슈투데이 편집국, 『기하학』, 이슈투데이 편집국2010,p.67

58)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는 ‘원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원론’은 기하학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논의로 알려져 있으며,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를 다졌다.

1) 프랭크 스틸라의 기하학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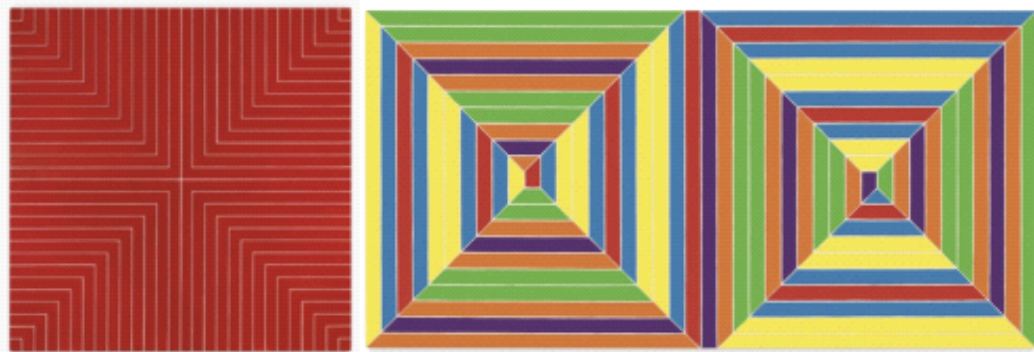
선과 면의 결합은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형 요소이며, 이 두 가지 요소의 조화로운 결합은 텍스타일 디자인에 깊이와 입체감, 그리고 시각적인 흥미를 더해준다. 본 연구의 디자인 요소인 기하학적 특징은 점과 선에서 발생한 이차적 조형으로 스트라이프패턴과 선형의 패턴으로 텍스타일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2022년 패션디자이너 스틸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는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22 F/W 컬렉션 41착장을 선보여 미국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프랭크 스틸라를 기념하였다.



<도판 14 > 2022 F/W 스틸라 맥카트니 컬렉션⁵⁹⁾

59) 출처: https://www.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28&number=40393

미니멀리즘의 선두자인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 단순한 형태를 반복하고 변형하여 복잡하면서도 질서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절제된 아름다움과 논리적인 구조를 부여한 기하학적 추상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 Delaware Crossing 는 정사각형 캔버스에 규칙적인 선들이 그려져 있으며, 이 선들은 다시 가는 줄로 세분되어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제거한다. 기본적인 형태와 색채에 집중할 수 있는 선의 연속성은 공간이 가진 한계를 벗어나 외부로 확장된 공간을 만들어주며 기존의 캔버스에서 새롭게 확장된 공간을 지각할 수 있다.



<도판 15> 60)

Delaware Crossing, 1961

<도판 16>61)

Double Mitered Maze, 1967

프랭크 스텔라의 또 다른 작품인 Double Mitered Maze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강렬한 색채의 표현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조합은 캔버스에서 새로운 시각적 조형을 창조하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구조⁶²⁾는 복잡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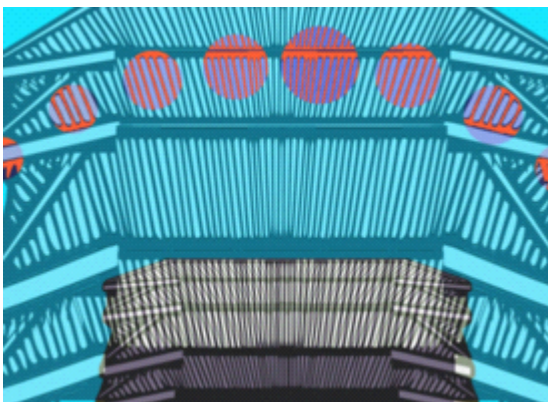
60) 출처: <https://www.mutualart.com/Artwork/Double-Mitered-Maze/5F295D52182F6A19>

61) 출처: <https://www.mutualart.com/Artwork/Double-Mitered-Maze/5F295D52182F6A19>

62) '다층적 구조'는 그림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졌다는 시각적 의미를 넘어, 관람객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엷힌 선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적 복잡성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서 느끼는 사회, 삶, 인식을 의미의 다층성과 시각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한다.

프랭크스텔라 작품에서의 선은 점이 외부로부터의 힘을 받아 움직여 나가면서 독창적인 제 이차적인 요소⁶³⁾로 재해석된 구조이다. 밀도 있는 복잡한 구조의 선들로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의 길은 무한 공간을 시각적으로 분할, 배치하여 독창적인 기하학적 추상과 복잡한 구조의 선들은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선들은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성으로 인간의 삶과 무한한 확장성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우주와의 깊은 성찰⁶⁴⁾을 담고 있다.



연구자의 작품 푸른점화는 단색 색면들의 반복과 중첩을 통하여 시간성과 공간의 깊이감을 만들어 준다. 캔버스의 한정된 공간을 연속성으로 인하여 새롭게 공간을 확장하여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 도판 17> 정유진 작품

푸른점화, 2024

63) 바실리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선·면-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당, 2019 p.47

64) 선다혜, 「기하학적 모듈화를 이용한 섬유 조형의 서정성 표현 연구」, 홍익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3) 미니멀리즘과 텍스타일: 엘즈워스 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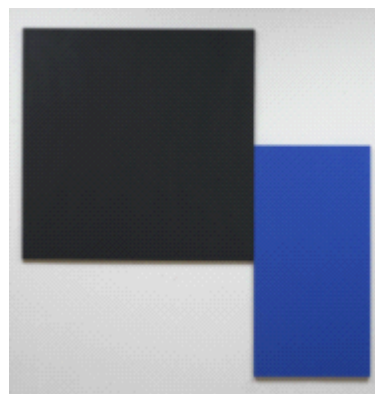
미니멀리즘과 컬러 필드 회화를 대표하는 미국 작가 엘즈워스 켈리 (Ellsworth Kelly, 1923-2015)의 작품에서는 사각형, 원, 삼각형 등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주로 사용하는 넓은 면에 단색을 사용하여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캔버스의 공간을 활용하여 깊이감을 부여하고, 색채와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이야기를 제공한다. 켈리의 작품은 단순한 형태와 강렬한 색채를 통해 관람자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깊은 사색을 유발한다. 그는 색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복잡한 형태 대신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하여, 색채와 형태의 본질을 탐구하며, 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시각과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색채가 우리에게 주는 감정과 캔버스의 공간을 활용하여, 작품을 넘어선 더 큰 공간을 상상하게 한 연관성은 조형 원리와 색채를 통한 시공간적 확장으로 회화의 인지적 화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도판 18>

Colored Paper Image XIII⁶⁵⁾

(Yellow Green Black Blue Orange),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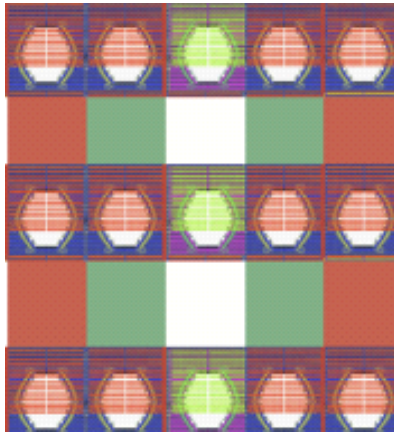


<도판 19>

Black Square with Blue 1970⁶⁶⁾

65) 출처: <https://www.susansheehangallery.com>

66) 출처: <https://www.tate.org.uk>



연구자의 작품 Hamony 역시 단색의 색면들의 스트라이프로 구성 되어있다. 수직으로 연결한 화면에 수평의 유닛을 공간적 그리드로 디자인하여 스트라이프면이 겹침으로 인한 그리드가 가진 정적이고 고요한 느낌으로 변환되어 변칙적인 리듬감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도판 20> 정유진 작품 부분

Hamony, 2024

작품의 특징	본 연구 작품 속의 의미	본 연구에 적용된 표현
기하학적 추상	우주질서, 절대적인 진리 추구	기하학적 형태의 단순화
단색사용	본질에 대한 집중, 정신적인 순수함	색채의 제한적 사용
빛과 그림자의 조화	- 명암을 통해 공간감 표현 -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	겹침을 통한 음영
색채의 조화	- 자연에서 발견한 다채로운 색채를 조합한 독특한 색채	컬러팔레트 및 블럭
공간의 재구성	- 새로운 차원의 공간 창조, 현실과 이상의 공존 - 무한한 가능성, 미래에 대한 기대	공간의 재구성
평면성강조	- 현실과 예술의 통합, 일상 속 예술 발견	평면적 패턴

<표 13> 엘즈위스 켈리 작품 특징과 연구자의 작품에서의 표현 방법

IV. 텍스타일 디자인의 스토리텔링

현대 패턴 디자인은 문화적 코드와 사회적 담론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다층적인 의미를 담은 미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 패턴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기원과 건축사 연구 방향을 설정한 니콜라우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 1902~ 1983)⁶⁷⁾는 1926년 <근대 디자인의 선구자들>⁶⁸⁾에서 디자인이 사회, 문화,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건축물의 형태를 분석하여 그 시대의 사회, 문화, 기술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며 모더니즘 디자인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심층적으로 디자인의 본질을 탐구하였다. 현대 조형예술 과정은 아이디어발상, 형상과 기능의 구체화, 구현된 조형물의 평가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⁶⁹⁾

본 연구는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한 텍스타일디자인의 시각적 패턴화 작업을 진행하여 텍스타일디자인에 궁궐 창호의 조형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텍스타일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스토리텔링 연구이다. 개발된 디자인을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방법을 통하여 패션 문화상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며 패션 문화상품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 트렌드를 도출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한다. 이에 주요 사건은 앞 연구에서 분석한 기하학적 분석을 통하여 스토리텔링 하였다.

67) 20세기 디자인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 출신의 영국 미술사가, 건축사가.

68) 20세기 디자인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 모던 디자인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디자인 연구의 고전으로 자리매김.

69) 최민영 외 4인, 『기초조형 Producing』, 안그라픽스, 2011

1.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1)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본 연구의 고궁과 창호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모티브는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특정한 형태를 이루는 과거의 재현이며, 그것이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보이는 형태의 표현 방법과 구도와 배열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간의 연속과정의 체계화 이다. 이를 위해서 단순하게 보았을 때 모티브에 무엇이 그려졌는지에 대한 선입견 없이 단순하고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모티브에 그려진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모티브가 패턴으로 배열되는 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의 구도에 대해 분석 할수 있다. 이는 형식 분석을 통해 외적 표현 요소가 작품에서 미적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고찰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시대의 예술이 보여주는 시각적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⁷⁰⁾

텍스타일 문양의 형식 탐구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 고궁의 이미지 중 첫 번째로 전각들의 건축적 조형성을 분석하여 형태 표현에 중점을 두고, 이와 동시에 각각 건축의 상징성을 파악하여, 선과 면 그리고 색채가 만들어진 개별 모티브들이 어떻게 패턴 기초요소인 PP(Pattern Primitive)로 표현되는지를 전개하였다. 또한 PP가 조합, 반복되어 나타나는 최소 반복 단위인 RPU(Repeated Pattern Unit)⁴¹⁾의 배치 및 배열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이 RPU들이 다시 배열되어 반복적인 문양이 만들어지는 구도를 분석하였다. 다른 시각 예술들과는 달리 텍스타일 디자인은 모티브를 간결하게 패턴으로 표현하여 반복적 원리로 배치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패턴을 구

70) 조현승·지상현·이주현, '시각적 속성에 기초한 섬유 패턴 디자인 요소 분석체계 개발', 「간성 과학」, Vol.1, No.2, 1998, p.56.

성하는 요소들은 시각적 질서와 조화, 반복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디자인에서 보이는 표현 방식, 배치, 배열 방식과 구도는 앞서 연구에서 분석한 경복궁의 배치도에 담가진 ‘주례’와 ‘삼문삼조’의 연구를 지표적 틀로 사용하였다. 선적인 것과, 평면성과 깊이감, 폐쇄된 형태와 개방된 형태. 다원성과 통일성, 명료성과 자연 친화적인 구조는 텍스타일 디자인에 적합한 용어를 추출하여 사용 하였으며, 패턴의 반복적 배열에 대한 분류를 위해서는, 패턴의 움직임은 전각의 기본 배치도인 사각형의 구조로 배열되는 스퀘어(Square), 벽돌을 쌓듯이 좌우로 교차 배치하는 브릭(Brick)과 상하로 교차 배치하는 하프드롭(Half-drop), 그리고 원형 구조인 서클(Circle)과 같은 단위형으로 분류하였다.⁷¹⁾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유산 중 궁궐의 왕권 강화의 대표 법궁인 경복궁의 근정전과 이궁인 자연과 조화로움으로 창덕궁의 조형적 특징 분석하고 고궁이 건축물의 조형적 특징과 상징성을 모티브로 사용해 단계별로 작업하였다.

1차적 작업은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건축의 형태를 조형적 디자인 원리로 이미지화하였다.

2차적 작업으로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들을 회전, 교차, 반복 등의 조형원리를 이용하여 배치하였다. 이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패턴을 제작하였으며 상징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궁궐의 패턴 작업을 진행하였다.

3차적 작업은 작업한 패턴을 옥스퍼드 원단, 캔버스 원단, 쉬폰 원단에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을 적용하여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였다.

4차적 작업으로 디자인한 원단을 이용하여, 전시 작품과 액세서리소품인

71) 조배문·김선미, 「윌리엄 모리스 텍스타일 디자인에 나타나는 패턴 구조 분석, 한국디자인 포럼」, 24, 2009, p.136.

에코백 35개 제품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자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보여 지는 상업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현대적 디자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섬유 액세서리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한국의 전통 문화예술이 과거와 현재에 연결되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상품 개발을 제시하였다.

2) K-디자인과 문화상품 개발

조선의 성리학에서 보여 지는 우주와 인간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사상 체계인 백성을 중시하는 민본정치⁷²⁾와 이상적인 통치 방식인 왕도정치⁷³⁾를 국시로 삼아 정도전은 경복궁을 조성하였으며 중시하는 민본사상은 조선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년 가까이 법궁의 지위를 유지한 경복궁은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의 순서로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인왕산과 백악산을 병풍 삼은 근정전은 정전으로 경복궁에서 가장 위용이 뛰어난 건물이다. 앞서 분석한 경복궁 근정전은 조선 왕조의 가장 중요한 건물로, 왕이 신하들을 만나 정사를 논하고, 왕의 즉위식, 신년하례 등 국가와 외교활동의 큰 행사가 열렸던 공간이다. 좌우 대칭구조를 기본으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던 유교적 사상을 반영하였으며, 왕의 권위와 위엄을 동시에 상징한 건축물이다. 남북 중심축을 따라 배치된 주요 건물은 남쪽에서부터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순으로 이어지며, 각 건물은 엄격한 격식과 위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외조와 내조의 분리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왕의 권위를 강조 하였으며 궁궐 후원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공간을 보여준다. 궁궐 건축과 조형미 연구 해석을

72) 조선은 '인(仁)' 사상을 바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피야 한다는 민본 사상을 강조 하였으며, 유교 사상을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다.

73) 이상적인 왕이 백성을 위해 덕을 베푸는 이상적인 정치형태

통하여 끊임없이 역사의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는 생명력과 예술적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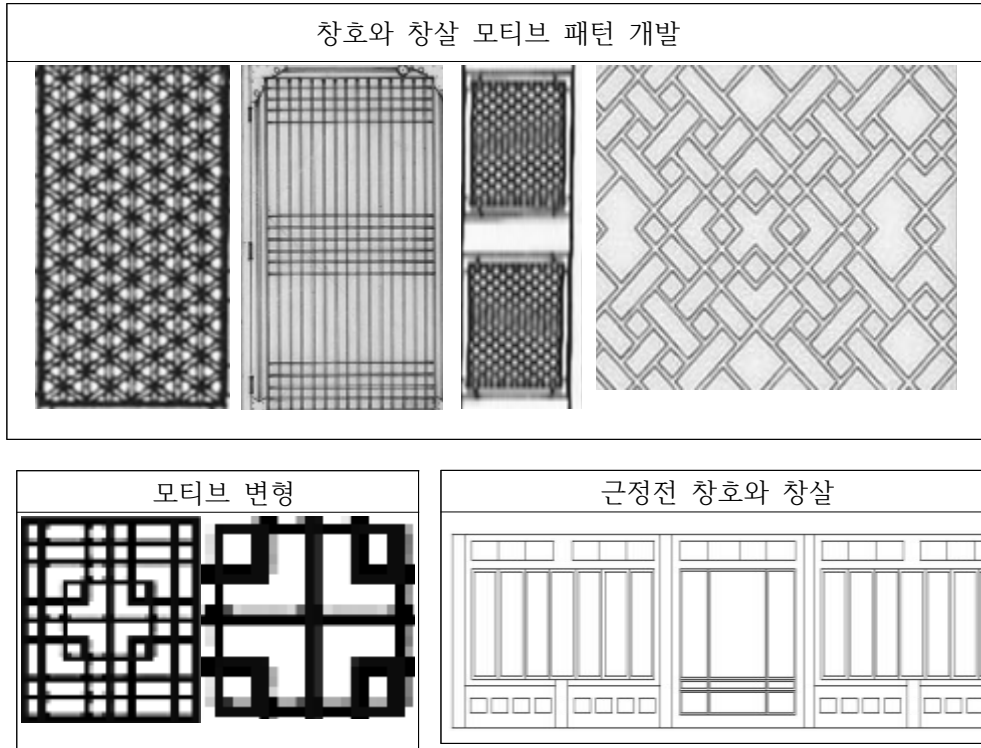
모티브 개발은 근정전의 조형성을 선택하여 경복궁의 웅장함과 화려한 장식식을 최소한으로 표현하였으며, 창과 문의 선과 면은 수평·수직으로 미니멀한 표현을 강조하였다. 전통의 건축미와 세분화된 구성미와 여백의 미로 조형성을 강조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① 창호와 창살

선과 면으로 구성된 사각형의 문과 창을 확대 표현하여 모티브의 현대화 과정을 연구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간결한 디자인 형태로 공간과 여백을 살려 기본패턴을 완성하였다. 창은 주로 창호(窓戶)라 불린다. 빛을 들이기 위해 만든 창(窓)과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드는 문인 호(戶),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창호'라고 부른다.⁷⁴⁾ 건물 내부의 채광과 통풍의 기능의 창(窓)과 사람과 물품이 드나드는 문(門)은 서양의 창과 문의 뚜렷한 구분과 달리 한국의 창과 문은 뚜렷한 구분을 주지 않는다.⁷⁵⁾ 건축에 있어 중요한 창과 문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구별한다. 동시에 외부와 내부를 드나들 수 있는 창호는 고궁에서 창문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건물 안팎을 연결하고 빛과 공기를 드나들게 하는 모든 개구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창호의 틀에 살을 넣어 완성하게 되면 창살이라 한다. 앞서 연구한 다양한 창호들의 구조를 접목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패턴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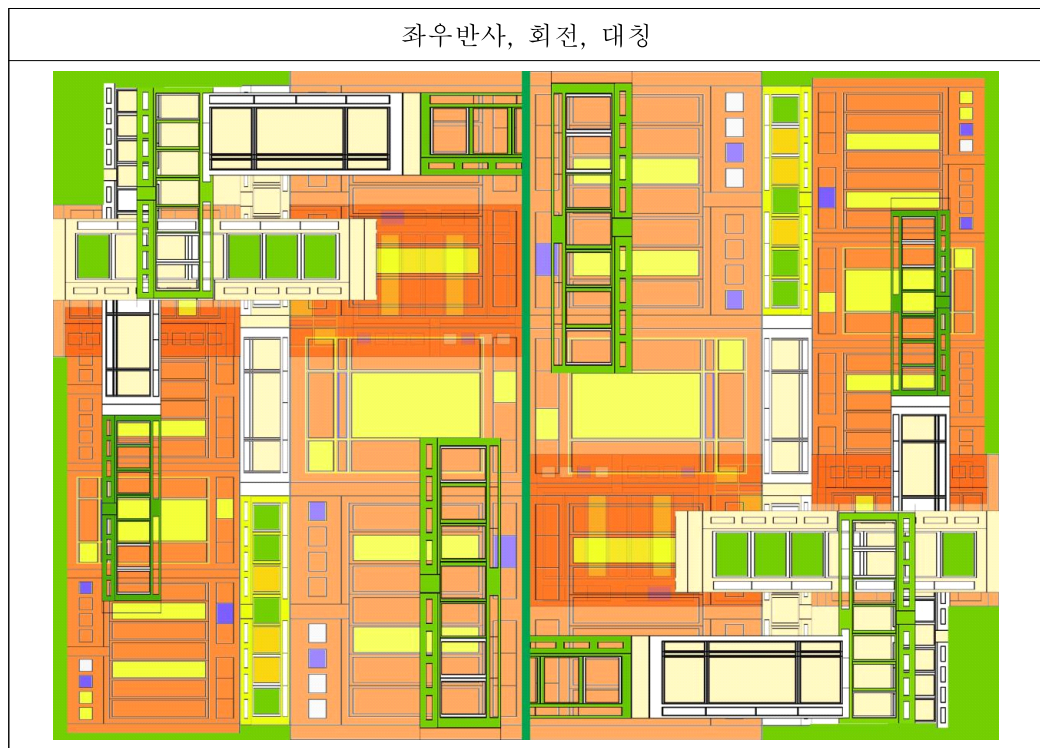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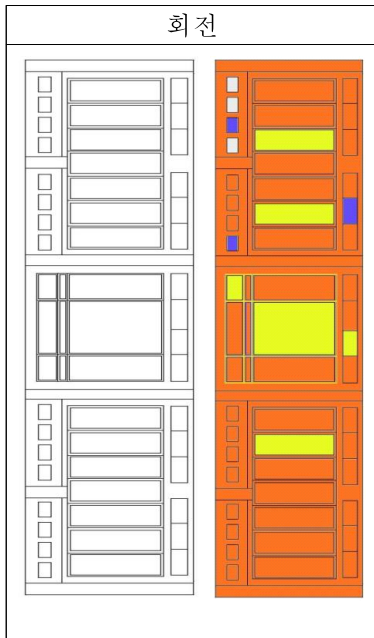
74) 장기인, 『한국 건축 대계 I:창호』, 보성각, 2000, p.9

75)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p.10~p.11



<표 14> 창호와 창살을 이용한 모티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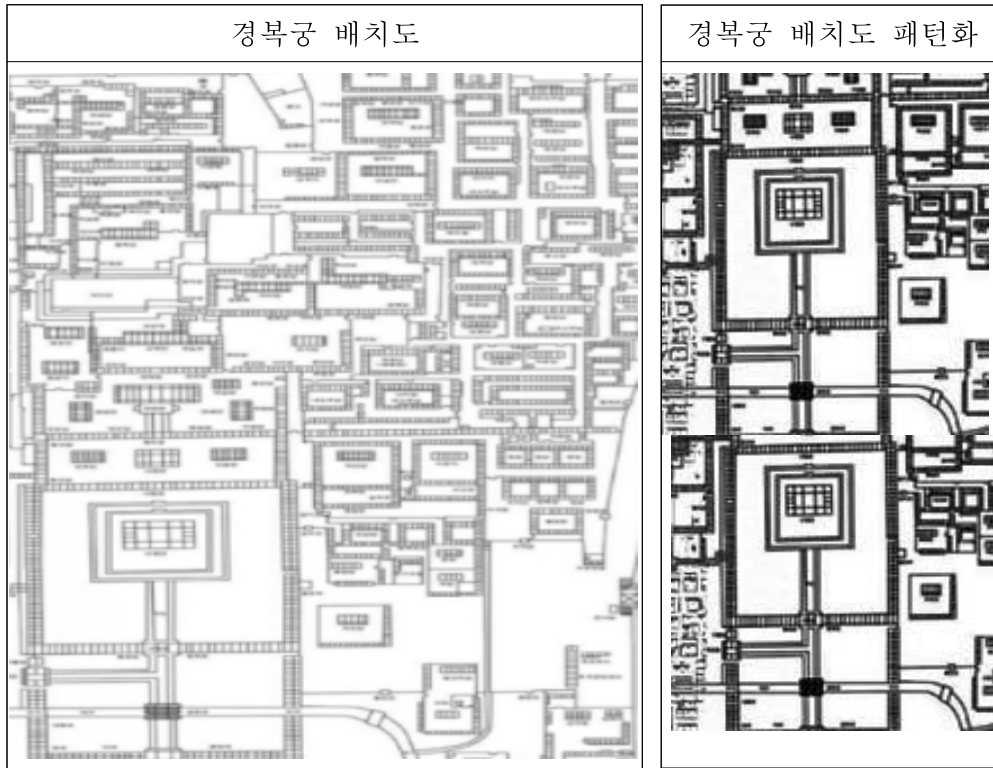
창살에는 다양한 의미의 문양들로 기능과 형태의 디자인을 모던화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완성된 창호는 미니멀한 기본 패턴으로 다양한 크기 사각형의 반복적 형태로 구성하였다. 창호의 기능적 목적인 인간과 사물이 드나드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선조들의 문화적 의미, 역사적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 공간이기도 하다. 여백의미를 살린 창호 모티브는 회전, 반복, 중첩의 방법으로 패턴을 제작하였다. 창과 문에 나타난 기하학적인 요소로 제작한 패턴은 반복성, 투시성, 추상성, 대칭성의 4가지 조형성을 이용하여 반복 단위 형태로 배치하였다.



<표 15> 작품 1 패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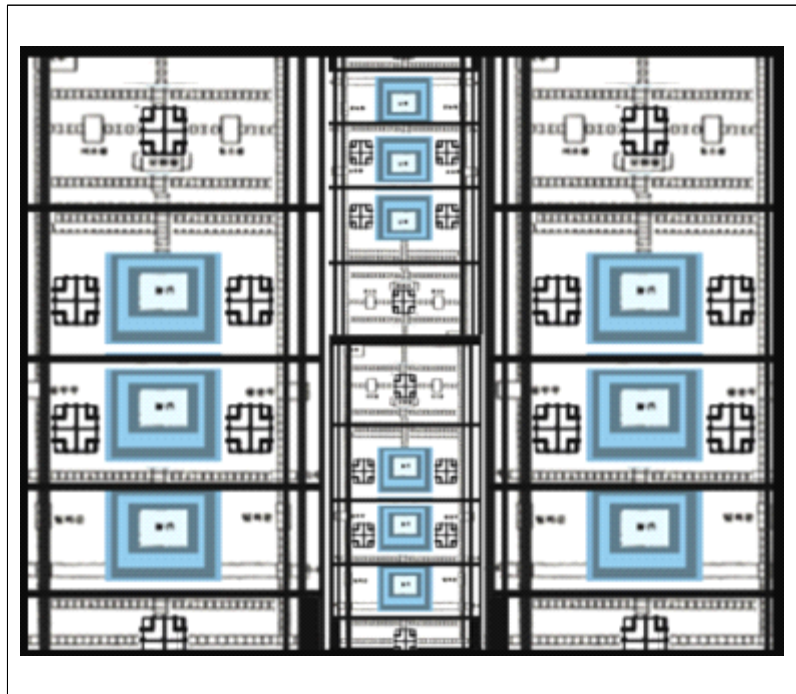
② 경복궁 배치도와 전각의 창문과 문

본 연구의 디자인 중 하나인 배치도는 1865년경 경복궁이 중건되는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복궁 배치도를 이용하여 모티브를 제작하였다. 각 전각마다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사각형의 각기 다른 크기로 제작하였다. 오방색에서 청색은 동방을 상징하며 봄의 시작하는 기운이 담겨져 있는 컬러이다. 배치도의 전각을 푸른 계열의 컬러로 표현하여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나타내었다.



<표 16> 경복궁 배치도를 활용한 모티브 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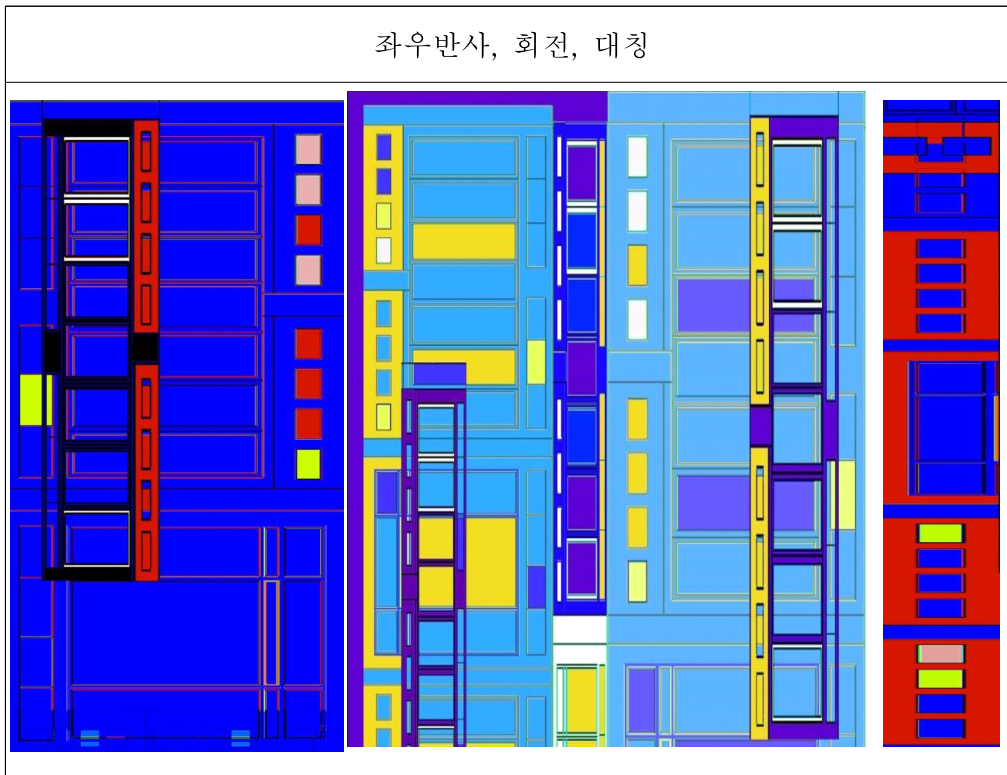
근정전의 중심으로 나누어진 선을 기준으로 수평, 수직으로 선과 전각을 배열하여 경복궁의 ‘주례’ 동관고공기에 따른 전각이 향하는 방향과 고궁으로서 가지는 정통성과 위계질서를 표현하였다. 배치도에 위치한 전각을 사각형의 통일된 구조로 디자인하고 각기 다른 크기의 사각형과 기하학적인 선과 면을 사용하였다.



<표 17> 경복궁 배치도 활용한 패턴 변화

기하학적 패턴으로 제작된 모티브는 경복궁 전각 배치도의 상징성과 조형성을 응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경복궁의 배치도는 우주의 질서·왕권 강화의 상징성인 남쪽의 정문인 광화문에서부터 북쪽의 후원까지 남북 중심축을 따라 주요 전각들이 배치하였다. 중심축은 하늘과 땅의 기운

이 통한다고 하여 근정전을 배치하였으며. 좌측에는 청룡, 우측에는 백호가 위치하는 풍수지리적 개념을 적용하여 궁궐을 보호하고 왕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나타내었다. 풍수지리학적인 전저후고(前低後高)⁷⁶⁾의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지형을 이용하여 궁궐의 위엄을 더하고, 왕의 권위를 상징을 배치도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왕이 정사를 보는 근정전은 중앙에 위치·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며, 동서남북의 각 방위에 따라 다른 기능을 가진 전각들이 배치한 배치도의 모습을 창호의 모티브를 중첩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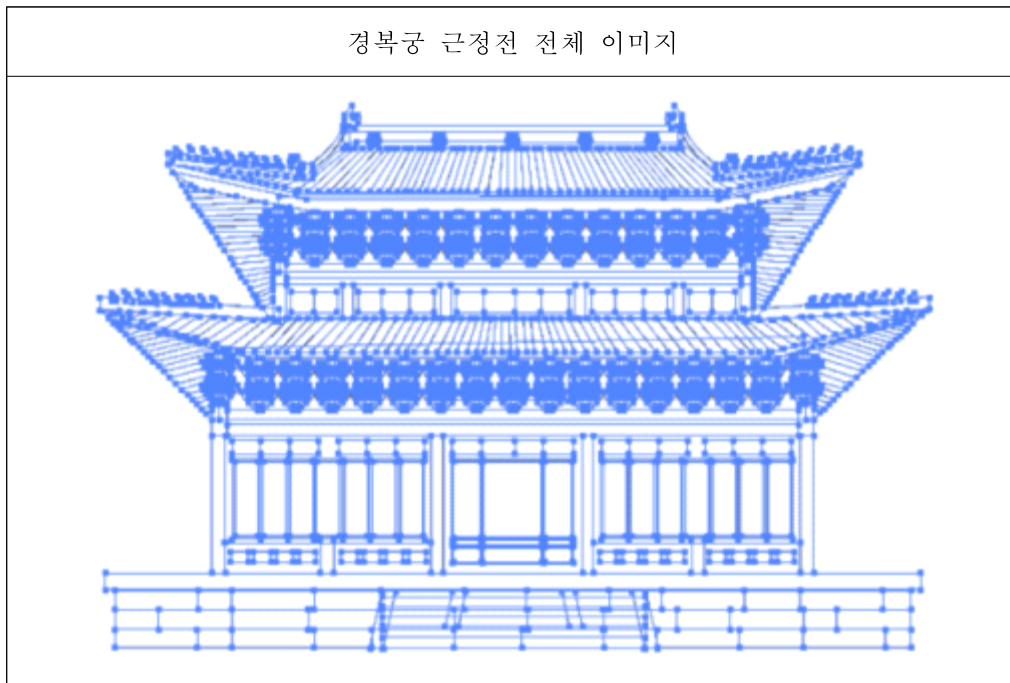


<표 18> 경복궁 창건안과 배치도 패턴화 과정

76) 건축이나 지형에서 앞부분이 낮고 뒷부분이 높은 형태를 의미하는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길상(吉相)으로 여겨져 건축물 배치에 사용되었다.

③ 경복궁 근정전 모티브

모티브 전개는 근정전의 건축적 외양을 <표 1>에서와 같이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통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궁궐의 화려한 건축양식은 태평성대와 유교적 이념의 건축 양식을 나타내었다. 모티브의 디테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 형태미는 강화하였으며 동시에 문양의 복잡함은 단순화시켜 표현하였다. 건축 조형의 화려함을 살리기 위하여 전각의 장식과 구조물의 형태를 디테일 있게 디자인 작업을 하였으며, 창살과 문의 형태는 수직, 수평 구조로 간략화하여 공간적 구조를 강조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표 19> 경복궁 근정전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1

④ 기와와 처마

한국의 자연은 직선과 곡선의 형태를 가지며, 옛 전통문화 예술품의 조각, 회화, 도자기, 복식, 가옥의 기와, 초가지붕 등에서 자연의 형태미를 볼 수 있다. 곡선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 예술품은 자연스러운 동세에 평안함과 온화함을 느끼게 해준다. 채금석(2005)⁷⁷⁾은 곡선과 여백의 미학에 대하여 우리 문화의 특성이라 하였다. <도판 21> 경복궁 전각과 기와의 사진을 살펴보면 전각의 처마 끝이 위로 처마 끝이 위로 살짝 들려 있는 형태를 보이며 이를 '솟을매기'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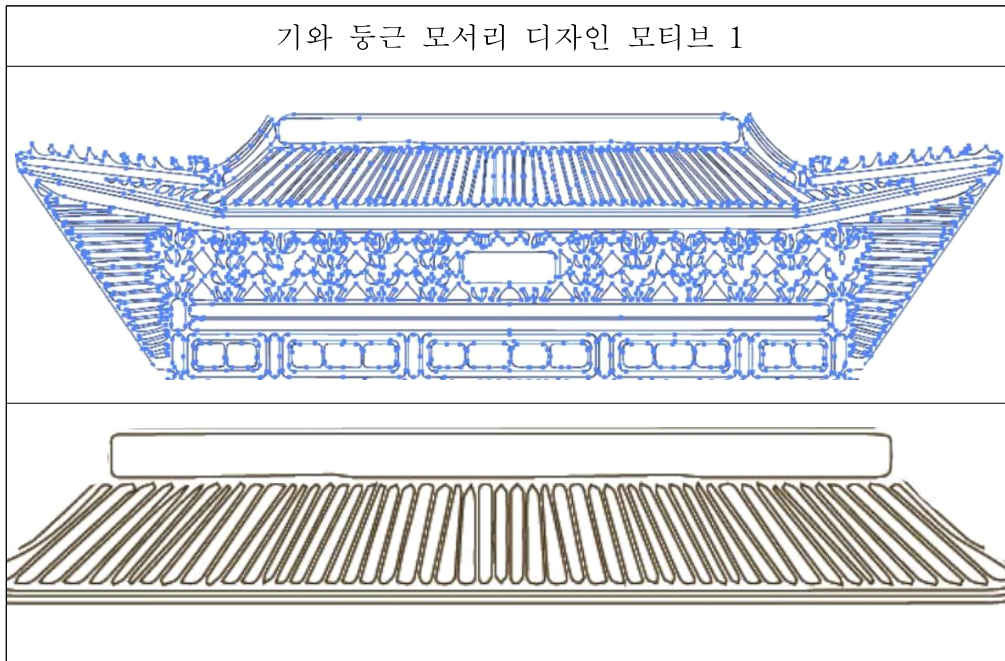


<도판 21> 경복궁 전각과 기와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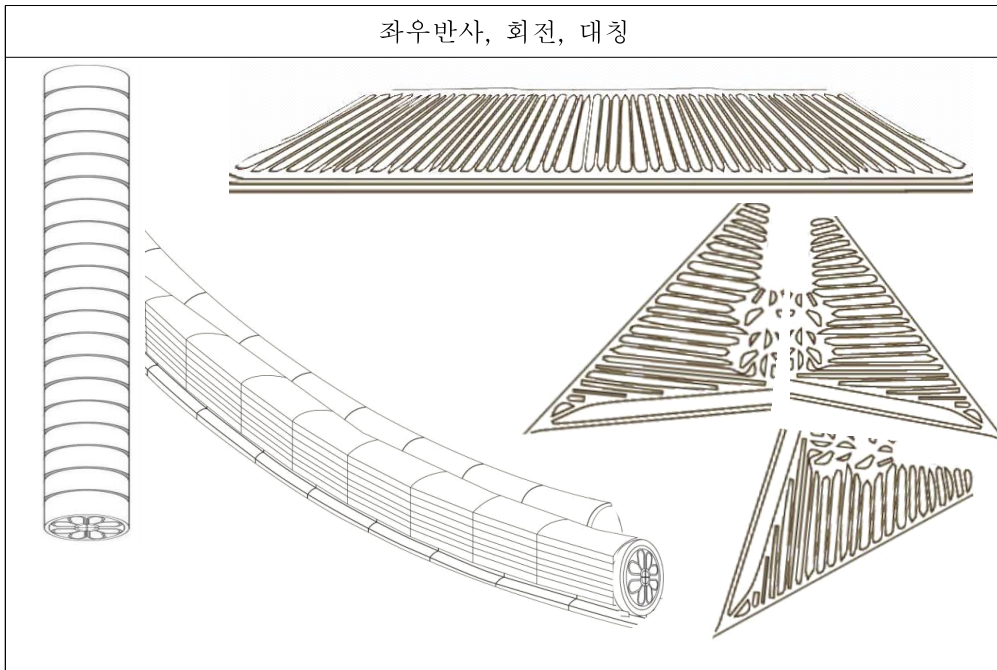
77) 채금석, 『현대 복식 미학 : 표현주의에 근거한 양면가치를 중심으로』, 경춘사, 1995, p. 5-13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듯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건축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며 동시에 하늘로 향해 뻗어 있는 듯한 모습은 웅장함과 기품을 더해 주어 왕궁의 위엄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와와 처마의 선은 경쾌한 느낌을 주며 동시에 곡선에서 오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기와는 하늘로 향해 쌓아 올려 지붕의 마무리를 하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처마는 기와를 지탱하고 건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요한 통로이다. 기와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곡선을 강조하여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를 모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드럽고 따뜻한 시각적 이미지를 디자인하였다. 기와의 선을 둥근 모서리로 단순하게 변화하여 일러스트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유연한 선의 반복을 통해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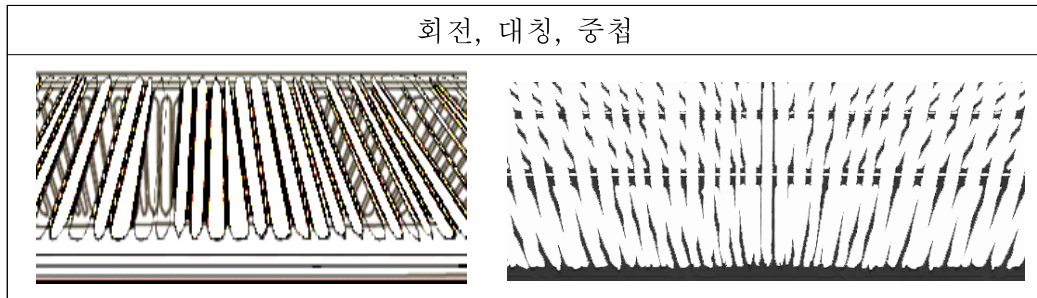
<표 20> 경복궁 근정전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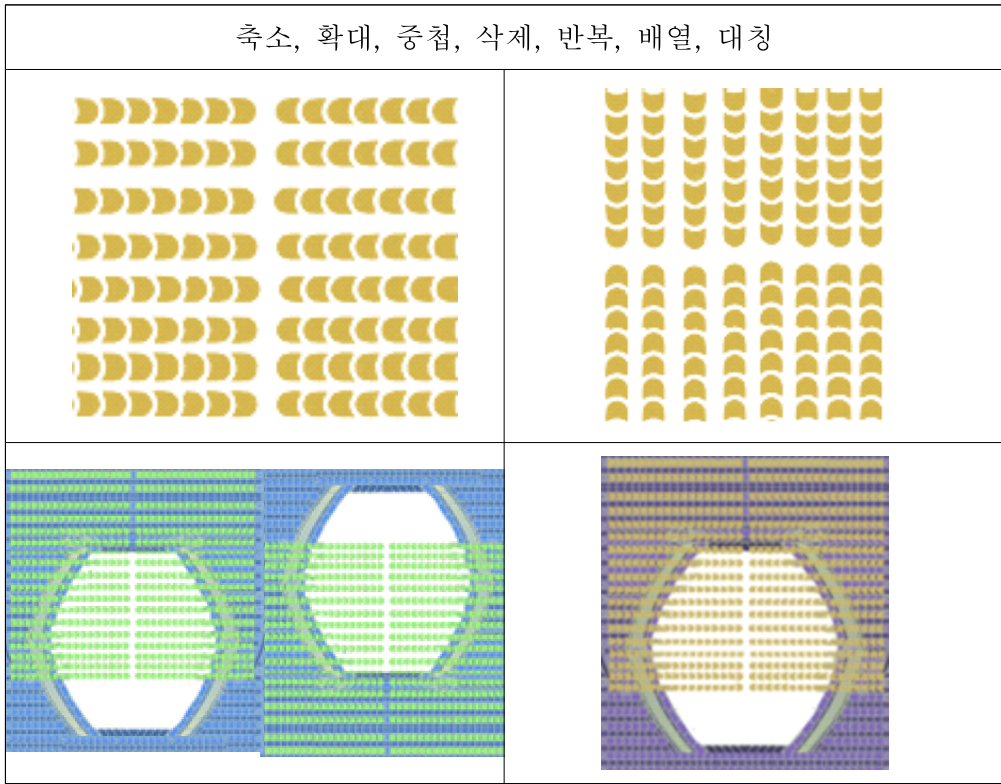
<표 21> 기와와 처마 패턴화 과정

김원용(1987)은 한국 고미술의 고유 특색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기본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대상 고유의 성질을 파악하고 재현하려는 자연주의요, 화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표현하려는 태도인 아(我)의 배제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인의 세계관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인간의 삶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데에서 기인하는 부분은 다양한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기와는 단순한 건축 재료를 넘어, 선과 면의 연속적인 반복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조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전각과 전각이 중첩된 복잡한 구조는 2중, 3중의 시각적 깊이를 형성하며, 이는 단순한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공간감을 창조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기와는 날카롭거나 복잡한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율동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기와의 곡선을 중심으로 한 부드러운 조형성과, 반복적인 패턴이 만들어내는 리듬감을 가지고 있다. 기와의 규칙적인 배열은 자연의 질서를 반영하며,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만남을 상징한다.



<표 22> 기와와 처마 모티브



<표 23> 기와와 처마 모티브의 변화

3) 컬러 배색

한국 전통 색채는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음양오행 사상과 결합하여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상징한다. 음양오행은 만물이 음과 양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고 변화한다는 철학으로, 여기에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오행을 더하여 건축, 의복, 그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오방색은 동아시아 전통문화에서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인 각각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으로 표현한 색채 체계이다. 이러한 오방색은 단순한 색깔을 넘어,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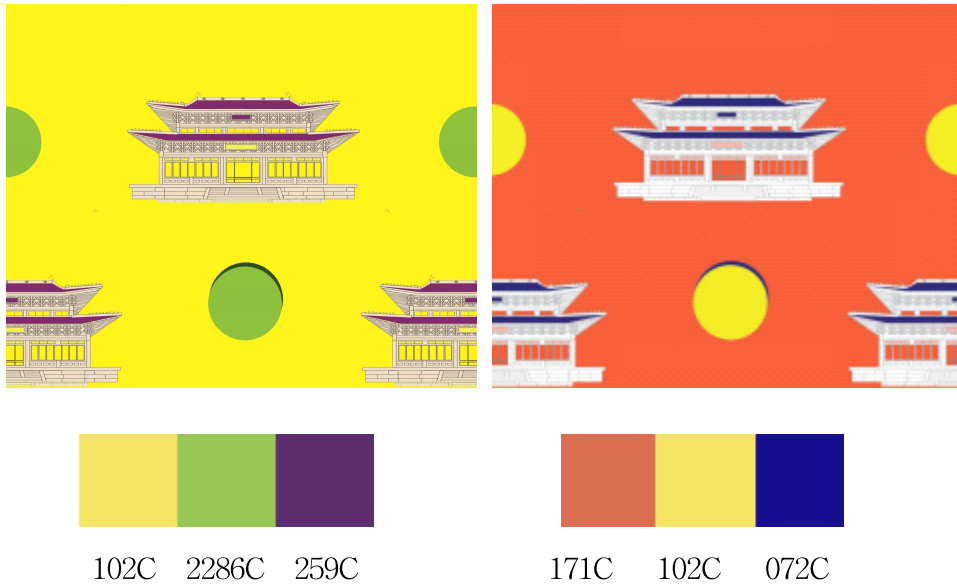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궁궐 건축이나 의례에서 사용된 오방색 깃발은 각 방위와 오행의 기운을 상징하며, 우주의 질서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방색은 단순한 색깔을 넘어, 우리 조상들의 우주관과 자연관이 담긴 깊은 의미를 지닌다. 오방색의 구성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로 분석해 보았다.

오방 (五方)	오색 (五色)	오행 (五行)	절기 (節氣)	상징	
중심	황(黃)	토(土)	사계	왕	
동	청(靑)	목(木)	봄	청룡	
서	백(白)	금(金)	가을	백호	
남	적(赤)	화(火)	여름	주작	
북	흑(黑)	수(水)	겨울	현무	

<표 24> 오방색의 구성과 의미

(1) 텍스타일 패턴의 색채











경복궁의 전각들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채로 장식되어 있다. 기둥에는 주로 붉은색의 주철을, 창문에는 푸른색의 너록을 칠해졌으며 고궁의 단청은 화려한 오방색 위주로 장식되어 있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오방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선명한 색상의 직물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왕권의 강한 권력은 황(黃)색은 중심에서 조화와 안정을 이루어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하늘과 나무를 상징하는 청(靑)색은 고궁건축과 우주 질서의 원리를 연결 지었다. 길상과 부정적인 기운 막기 위하여 사용한 붉은 적(赤)색은 정열과 생명력에 상징성 주었다. 금속과 달을 상징하는 백(白)색은 조선시대의 순수, 신성함과 백의민족의 단순히 옷의 색깔을 넘어서 역사와 문화 정신을 담고 있다.



<도판 22> 텍스타일 패턴디자인에 사용된 오방색과 PANTONE No.

주조색을 오방색으로 한 텍스타일 패턴은 문양의 명확한 이해와 시각적 명료성을 주었다. 또한 고궁의 단청에 사용한 컬러이기 때문에 전통의 디자인을 현대적 조형 디자인으로 재해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단청의 색상은 R계열, Y계열, G계열, PB계열, N계열 등 5개의 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사계절 자연환경 색채와 뚜렷이 구별된다. 본인의 텍스타일디자인 연구에서는 단청의 5개 색상 계열을 주변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R 계열의 색상은 밝은 회색, 베이지색과 조합하여 모던한 느낌을 주었으며, G 계열의 색상은 경복궁 자연에서 오는 따뜻한 갈색과 조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다음 표는 오방색을 기준으로 텍스타일디자인에 사용된 색상 계열을 정리한 표이다. 오방색을 기준으로 주요 디자인에 사용된 색상으로 정확한 구분을 위하여 PANTONE No. 표기를 사용하였다.

오방색	고유 색명	색 계열	작품 주요색상	PANTONE No.
	파랑	Y계열		072C, 312C, 2356C 306C, 7702C, 315C
	노랑	Y계열		102C , 123C
	빨강	R계열		1635C, 172C, 2347C
	하양	무채색		420C
	검정	무채색		539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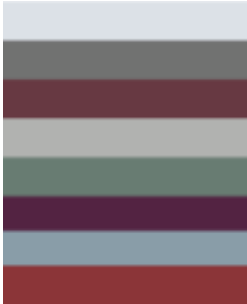
<표 25> 텍스타일 패턴디자인에 사용된 오방색계열

(2) 섬유작품의 색채









본 연구자의 섬유 작품은 한국 전통 건축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활용하여 시각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전각을 배경으로 하늘, 자연광, 기와지붕, 칭호 등에서 나타나는 색채를 추출하여, 명도, 채도, 색상 등의 색채 요소를 심층 분석하였다.

기와지붕은 명도 차에 의해 고명도와 저명도가 지각되기 때문에 명시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궁궐 건축의 마루 선이 명확하게 지각되었으며 하늘과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다. 저명도의 기와지붕은 빛에 반사로 인하여 중명도로 보이며, 깊은 처마에 생긴 그림자는 저명도로 관찰되었다. 벽면 부는 난색 계열의 기둥으로 인한 주목으로 진출, 팽창 색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창호에 의한 밝음으로 인하여 주변 색들과 대비현상이 만들어져 원경에서도 이들의 명시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현장 답사를 통한 경복궁 전각 사진은 포토샵을 통해 컬러를 추출하였으며 다양한 컬러 분해를 시도하였다. 추출한 컬러는 팬톤 컬러번호로 팔레트를 제작하였다.

원경 근정전/ 필자 촬영	배색 팔레트 PANTONE 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9C 424C 195C 421C 5555C 2357C 2177C 187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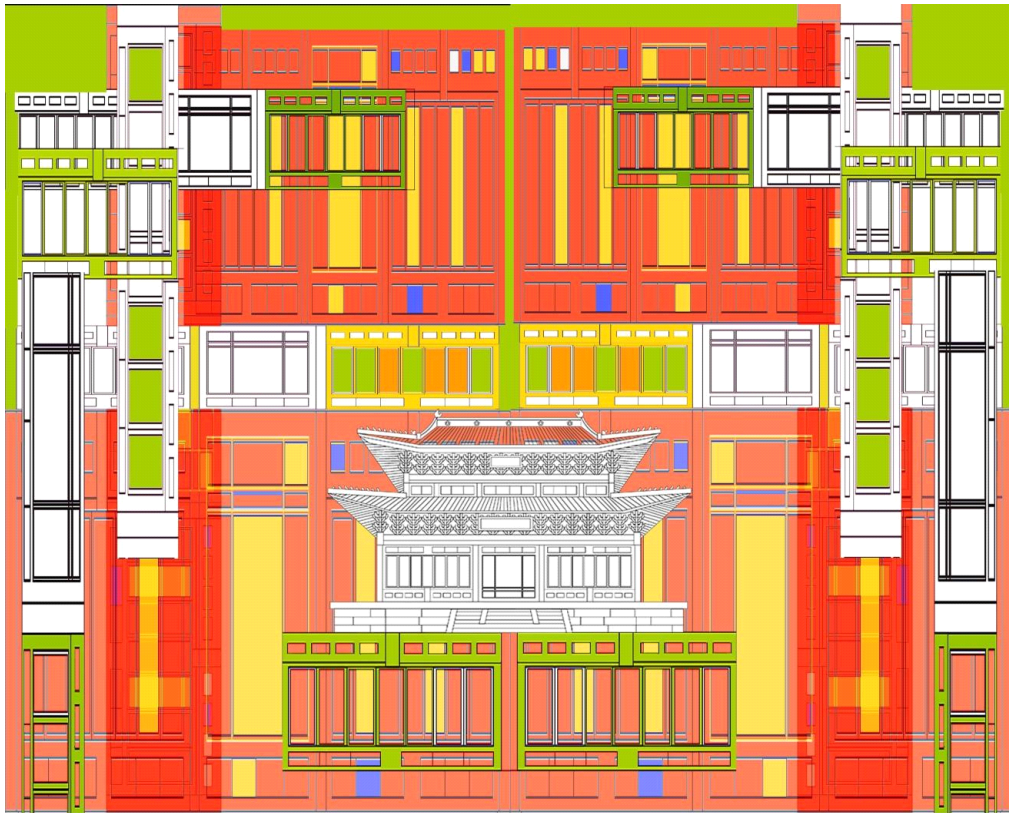
<표 26> 경복궁 근정전에서 추출한 색채

	근경 모티브/ 필자 촬영	배색 팔레트	PANTONE
하늘 & 기와			2975C 2137C 2380C 290C 433C
전각단청 컬러 팔레트			2024C 162C 2032C 353C 497C 222C
고궁 장식			1635C 2286C 102C 2347C 172C 312C 072C
전각 실내			306C 2592C 2249C 7619C 5395C 420C 072C

<표 27> 전각과 자연에서 추출한 색채

2. K-디자인과 문화상품 개발

1) K-디자인 개발



<작품 1> Modernize, Digital Textile Printing, Canvas, 450x600mm, 2024

Theme 1: Modernize, 2024

Size: 450 X 600 (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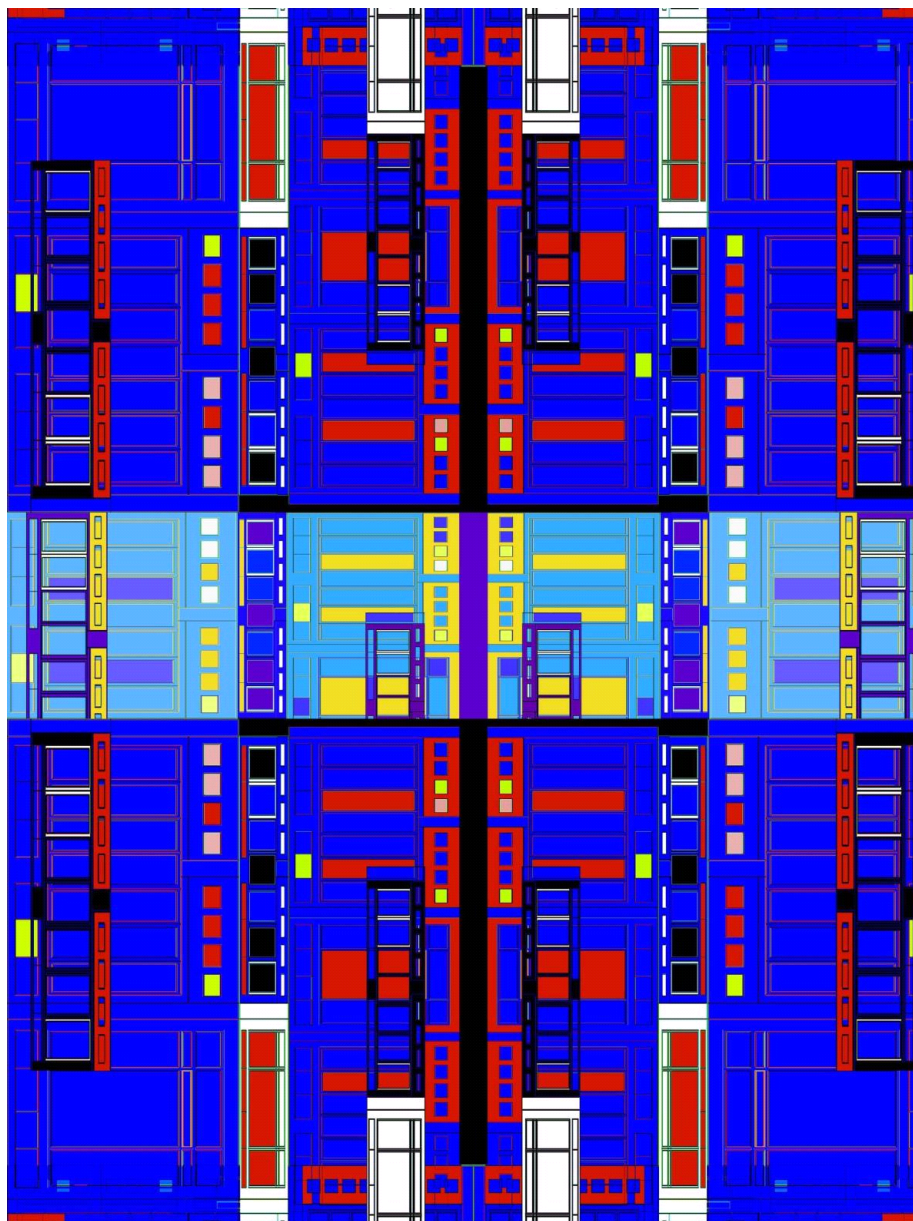
모티브의 전개는 경복궁의 근정전과 전개도에 표시된 전각을 활용하였으며, 고궁의 창호 패턴과 근정전 문의 디자인을 패턴화하여 전개하였다. 패턴 제작을 위하여 근정전의 건축 외형을 Illustration & Photoshop을 사용하여 기본패턴을 제작하였다. 완성된 창과 문의 기본 패턴을 회전, 반복, 중첩, 투시, 비대칭 원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합의 반복 된 패턴 형태로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고궁 건축에서 창과 문은 건축에서 기능적인 역할과 동시에 조형적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내부 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로서 계패 여부에 따라 소통과 폐쇄성을 상징한다.

2) Main Color (PANTONE NO.)

적색은 왕권과 권위의 상징으로 조선시대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컬러이다. 고궁의 자연과 전각의 조화로움을 주요 컬러로 배색하였다.



1635C, 172C, 072C, 102C, 2286C



<작품 2> Place, Digital Textile Printing, Hahnemuhle Paper,
510X670mm, 2024

Theme 2: Place, 2024

Size: 510 X 670 (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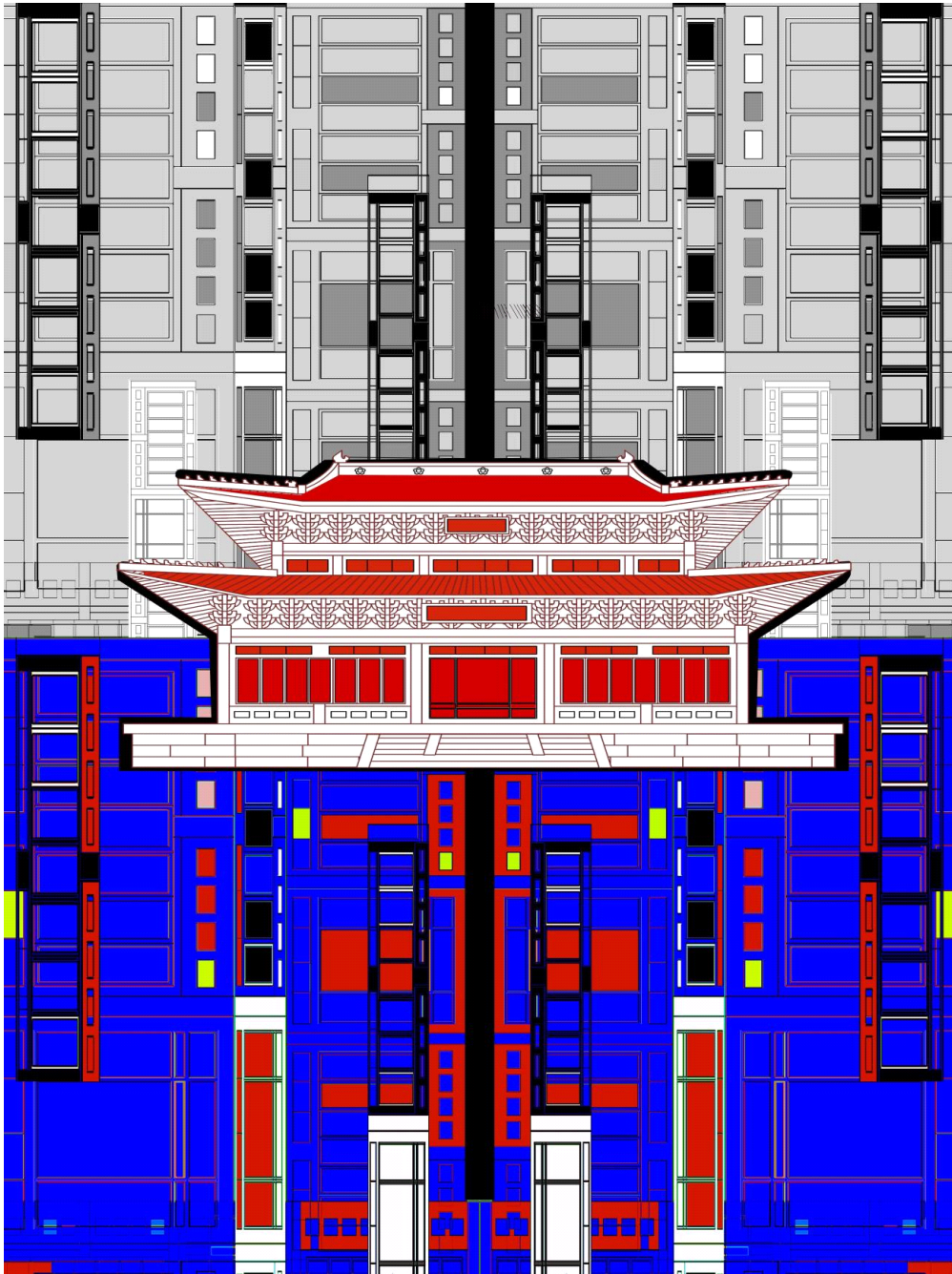
모티브의 전개를 위하여 경복궁의 배치도< 북궐도형>의 도안을 기본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배치도의 전각들은 점으로 표현되어 다양한 크기의 평면 유닛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점과 점을 잇는 수평과 수직선으로 연결된 선은 공간을 배분하여 질서감을 주었다. 고궁 건축에서 창과 문의 사실적인 형태와 평면 도안의 연결 구조는 다양한 조형적 결합과 간결성을 보여주며 평면적인 도안의 반복 패턴은 각 전각의 위치적 특성을 부여하며 기능적인 역할과 조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정한 면적을 Illustration & Photoshop을 사용하여 투시, 반복, 회전의 원리를 사용하여 변형을 시켜 단조로움을 없앴다. 전각의 반복적 형태는 유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 확장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2) Main Color (PANTONE NO.)

전통 청색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의 미래지향적 디자인 하였으며 높은 채도의 청색과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하여 에너지 넘치는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072C, 312C, 5395C, 102C, 2347C



<작품 3> 시간의 연속, Digital Textile Printing, Hahnemuhle Paper,
510X670mm, 2024

Theme 3: 시간의 연속, 2024

Size: 510 X 670 (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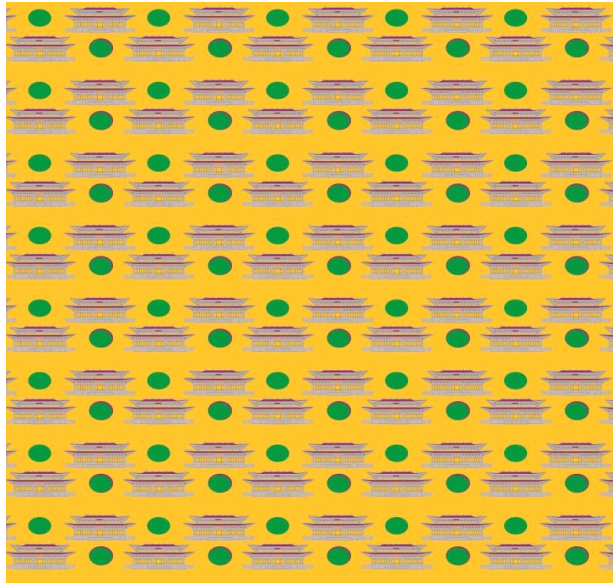
메인 모티브인 근정전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고궁 건축의 화려함과 기능적인 역할의 상징적인 특성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들은 집중과 반복을 통한 시각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선의 조합은 평면 위에 입체와 공간을 구현하며, 자연의 유기적인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 복잡한 선들의 얽히고설킨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는 조형미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조화를 상징한다. 다양한 선의 조합과 추상적인 형태는 평면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확장시켜, 깊이 있는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하였다.

2) Main Color (PANTON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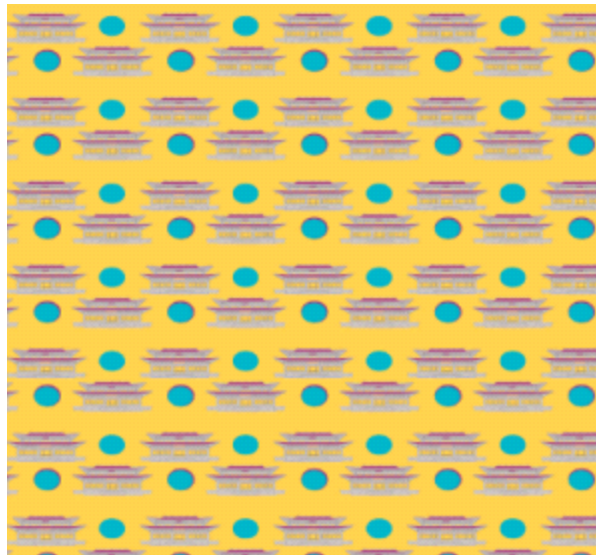
과거의 역사적 흐름을 무채색으로 표현하여 과거의 화려함을 시간의 흐름으로 단순화하고자 하였으며, 작품 하단의 유채색은 주조색을 파랑으로 하여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늘과 바다의 연속적인 의미를 더해주었다. 화려하면서 강렬한 빨강의 색채는 강력한 왕의 권위를 표현하였다.



072C, 420C, 172C, 5395C, 2347C



<작품 4> 봄의 소리, Digital Textile Printing, Oxford Fabric, 140X180mm,
2024



<작품 5> 봄의 소리, Digital Textile Printing, Oxford Fabric, 140X180mm,
2024

Theme 4,5: 봄의 소리, 2024

Size: 140X180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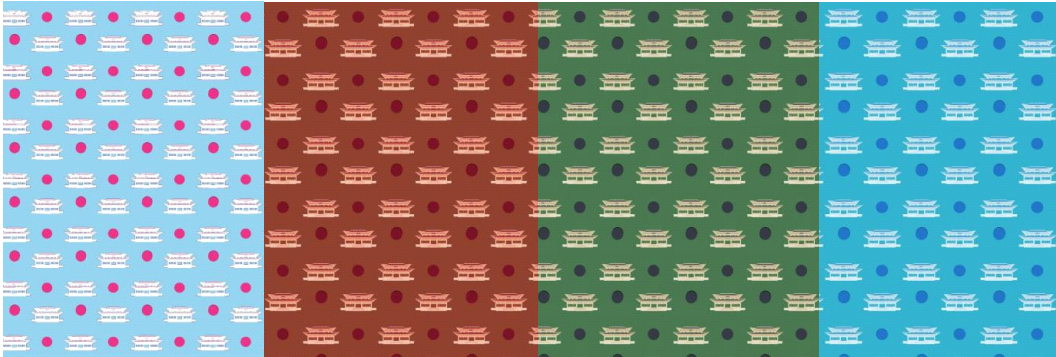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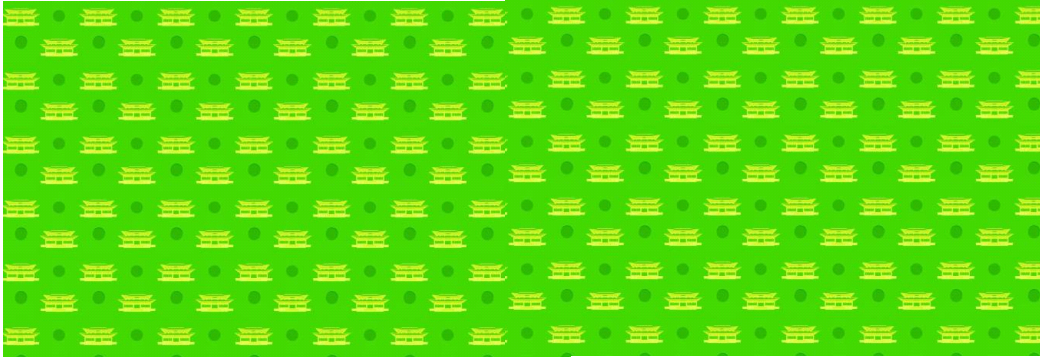
경복궁의 근정전과 달의 형태를 작품의 모티브로 개발하는 데 활용하였다. 엘즈워스 켈리 작품에서 보이는 빛과 그림자의 조화는 명암을 통해 공간감을 표현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주었다. 중첩이 적용된 원형 유닛의 입체감은 반복과 변화를 통해 시각적인 리듬감을 형성하였으며, 하나의 형태 안에서 안정감과 동시에 리듬감이 느껴지도록 구성하였다. 달과 근정전의 화려한 모티브를 결합하여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 근정전의 입체적인 구조와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달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정적인 아름다움 속에 역동성을 부여하였다. 달의 입체적인 형태와 평면적인 빛의 조화는 시각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2) Main Color (PANTONE NO.)

작품에서 달을 모티브를 중첩하여 낮과 밤의 음영을 만들어 작품의 깊이감을 생성하였고 반대색상을 활용하여 작품의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306C, 123C, 2252C, 2356C



<작품 6> 봄, 여름, 가을, 겨울, Digital Textile Printing, Oxford Fabric,
530X730mm, 2024

Theme 6: 봄, 여름, 가을, 겨울 2024

Size: 530X730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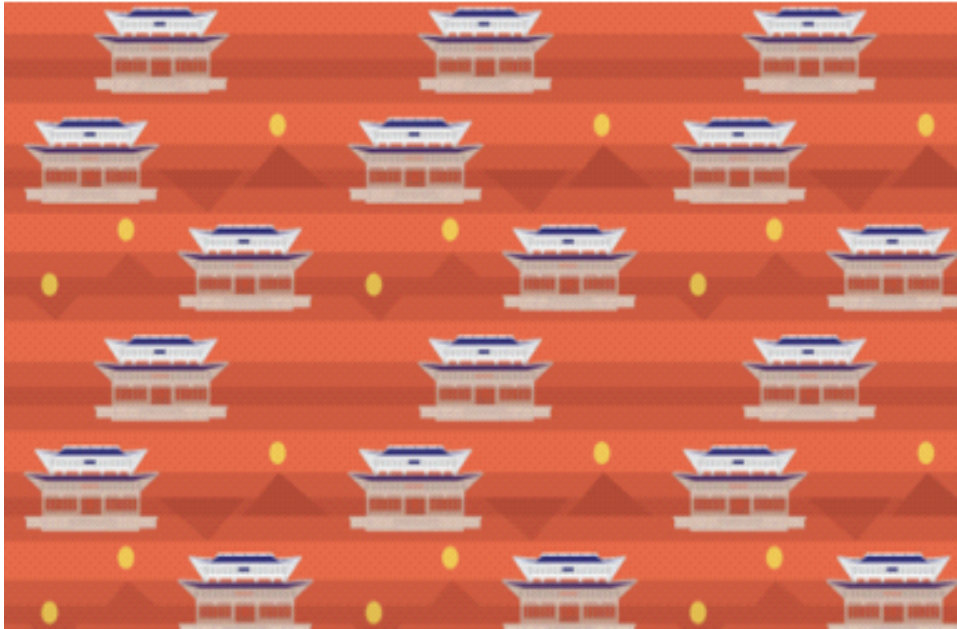
작품 <Theme 6,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작품을 사계절의 새로운 생성과 변화의 반복을 모티브로 표현하였다. 유닛들은 각기 다른 색채로 구성되어 서로 연결되고 조합을 이루어내는 동시에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역동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작품 전체에 걸쳐 시각적으로 사계절의 생성과 소멸을 상징하여 디자인하였다. 사계절의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자연의 질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고궁에서 건축과 자연의 색채를 추출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과 현대, 추상과 구상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을 조화롭게 통합하였다.

2) Main Color (PANTONE NO.)

전각을 배경으로 고궁에서 보여 지는 하늘, 자연광, 기와와 처마, 창호 등에서 나타나는 다채로운 컬러를 사계절의 색채요소와 결합하여 배색하였다.



2287C, 306C, 1685C, 2408C, 7702C



<작품 7> 풍경, Sublimation Transfer, Oxford Fabric, 90 X 90 mm, 2024

Theme 7: 풍경, 2024

Size: 800X800 (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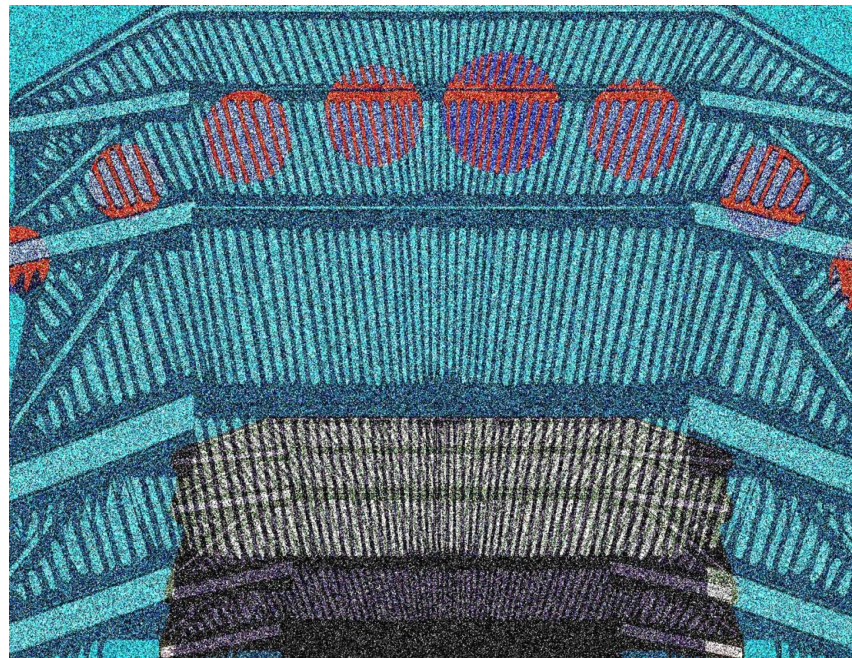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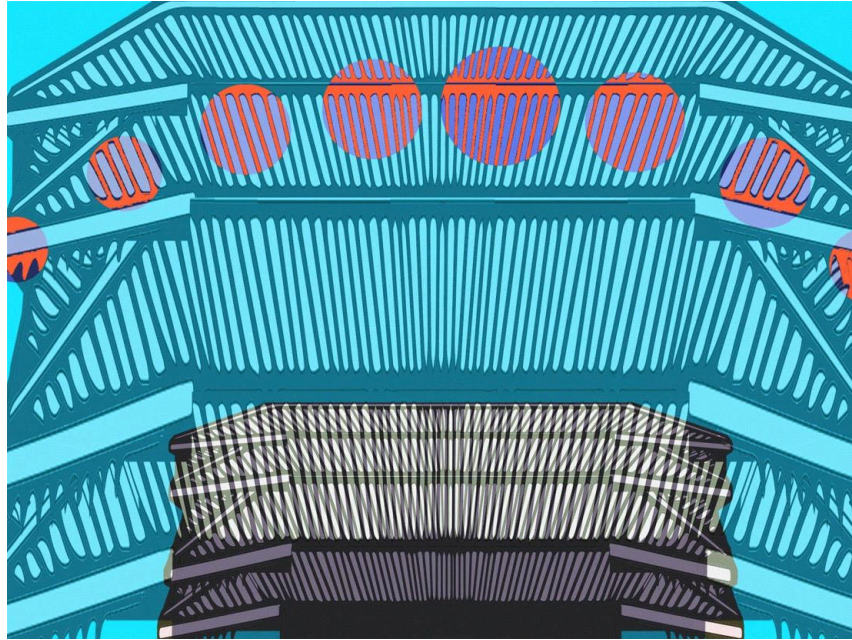
경복궁의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을 등지고 있는 근정전을 모티브로 표현하였다. 두 산은 풍수 지리적으로 볼 때 왕궁을 보호하고 기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인왕산은 흰 호랑이(백호)를, 북악산은 검은 거북(현무)이를 상징한다. 산의 형태를 삼각형으로 도형화하는 것은 자연의 역동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표현하여, 뾰족한 꼭짓점을 향해 뻗어 나가는 형태는 산이 하늘로 향해 솟아오르는 듯한 역동적인 기운을 표현하였다. 또한 위로 향하는 산과 아래로 향하는 산의 형태는 우리 우주가 마치 하나의 입자처럼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 이는 자연의 생명력과 변화를 상징한다. 겹쳐진 면들은 시간의 흐름인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공간에 공존하며 시간의 무한성과 순환성을 표현하였다.

2) Main Color (PANTONE NO.)

오방색 적색은 시대를 초월하여 강렬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과거와 현대까지 이어지는 활기찬 기운과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172C, 102C, 072C



<작품 8> 푸른점화, Digital Textile Printing, Oxford Fabric,650X530mm,
2024

Theme 8: 푸른점화, 2024

Size: 650 X 530 (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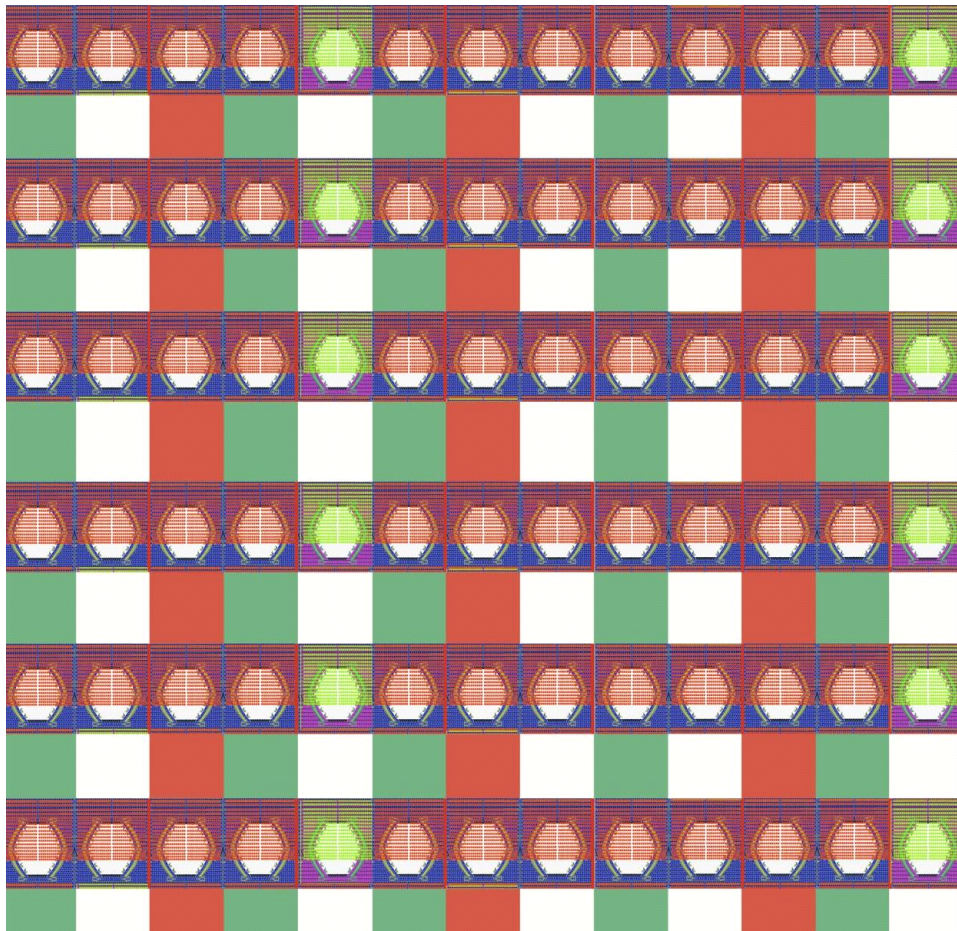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나는 달의 반복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확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기와의 다양한 단위 조형 요소를 반복하고 중첩하는 방식과 함께 달이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와의 형태를 평면화하여 반복적으로 겹쳐 올리는 형태로 나누었다. 반복되는 기하학적 요소, 색상, 질감은 질서 있는 구조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심층적인 의미로 담아 디자인하였다. 시간은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형성하며, 이는 질서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제공한다.

2) Main Color (PANTONE NO.)

기와의 지붕은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부분과 깊은 처마 아래 드리운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명암 대비가 극명하여 입체감이 뚜렷하다. 붉게 물든 달빛이 지붕 위에 비추면 붉은 계열의 색감이 더해져 공간에 깊이를 부여된다.



306C, 172C, 5395C , 315C



<작품 9> Hamony, Digital Textile Printing, Oxford Fabric,
140X270mm, 2024

Theme 9: Hamony, 2024

Size: 140 X 270 (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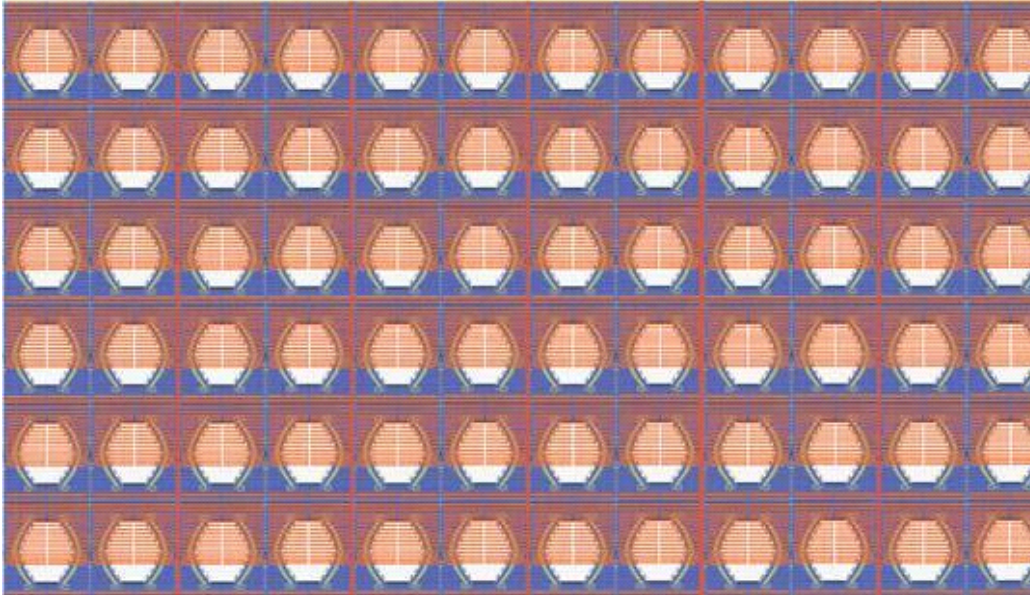
크기가 다른 유닛의 반복을 같은 두께의 선과 기와의 가변적 구조로 디자인하고, 두 공간 안에서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규칙적인 변화와 리듬감 있는 그리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과 열의 다른 선들로 이루어진 기하학 요소들을 배치 반복하여 일정한 간격의 유닛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공간을 디자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간의 연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유닛 사이의 간격을 통해 공간의 깊이 감을 조절하고, 다층적인 공간을 표현하였다. 또한 평면의 유닛을 공간적 그리드로 옮겨 그리드가 가진 정적이고 고요한 느낌에서 반복적 행위의 연속성을 주어 변칙적인 리듬감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단순한 형태와 복잡한 형태의 결합을 통해 색채와 형태의 본질을 탐구하여 시각과 사고를 변화됨을 디자인하였다.

2) Main Color (PANTON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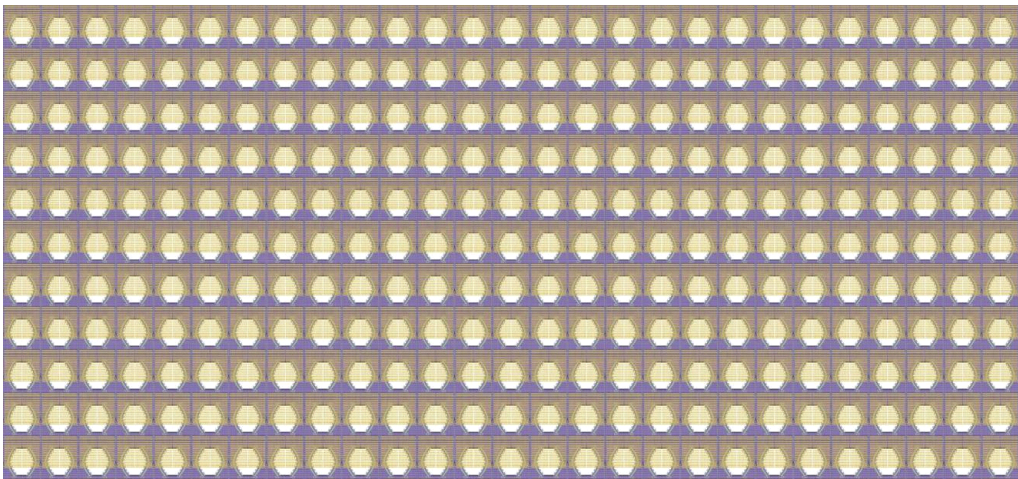
고채도와 저명도의 색채를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과 사용으로 깊은 사색을 유도하였다.



7619C, 072C, 2249C, 2592C



<작품 10> Hamony M 1, Digital Textile Printing, Oxford Fabric,
140X270mm, 2024



<작품 11> Hamony M 2 Digital Textile Printing, Oxford Fabric,
140X270mm, 2024

Theme 10, 11: Hamony. M1,2 2004

Size: 140 X 270 (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크기가 축소된 형태의 모티브가 행을 따라 반복되며, 같은 두께의 면이 수직선을 형성하여 규칙적인 기하학 패턴을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며, 평면에 입체감을 부여하여 공간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준다. 수평과 수직선의 조화로운 반복은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정적인 이미지에 역동성을 표현하였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주어 시각적인 흥미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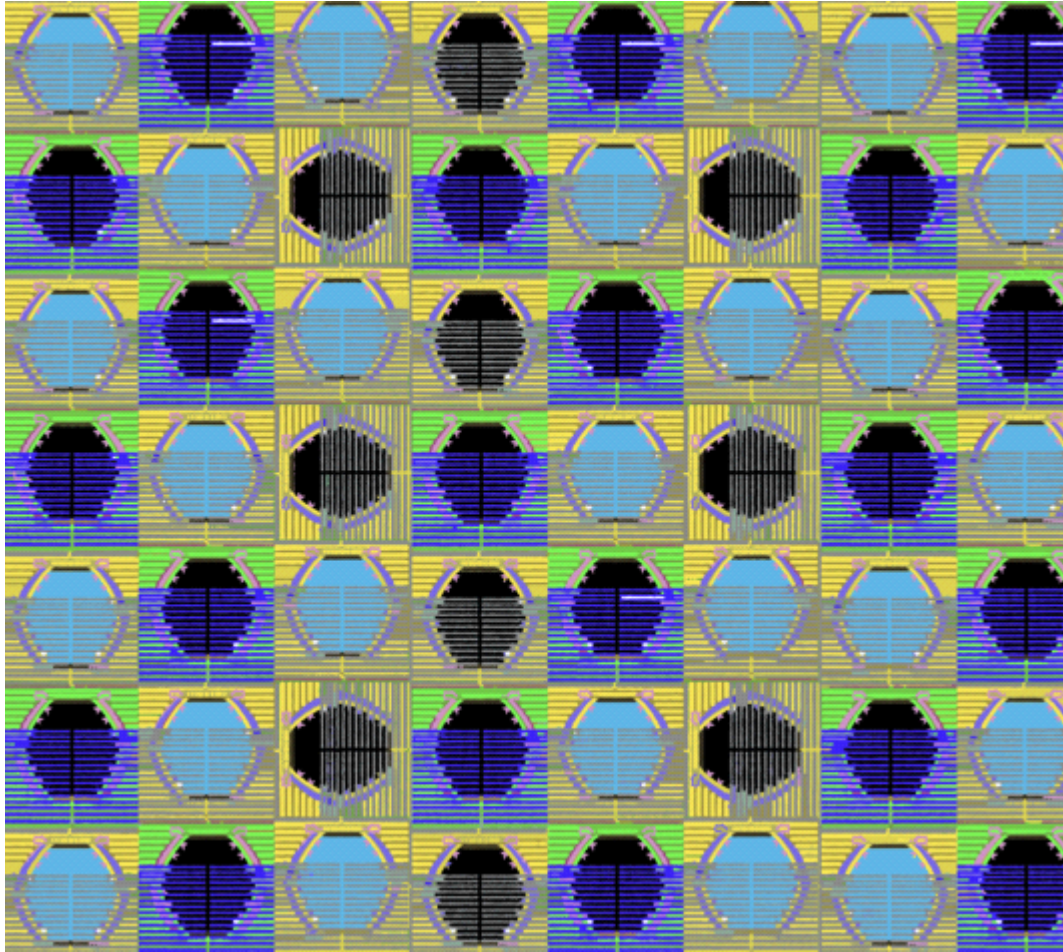
2) Main Color (PANTON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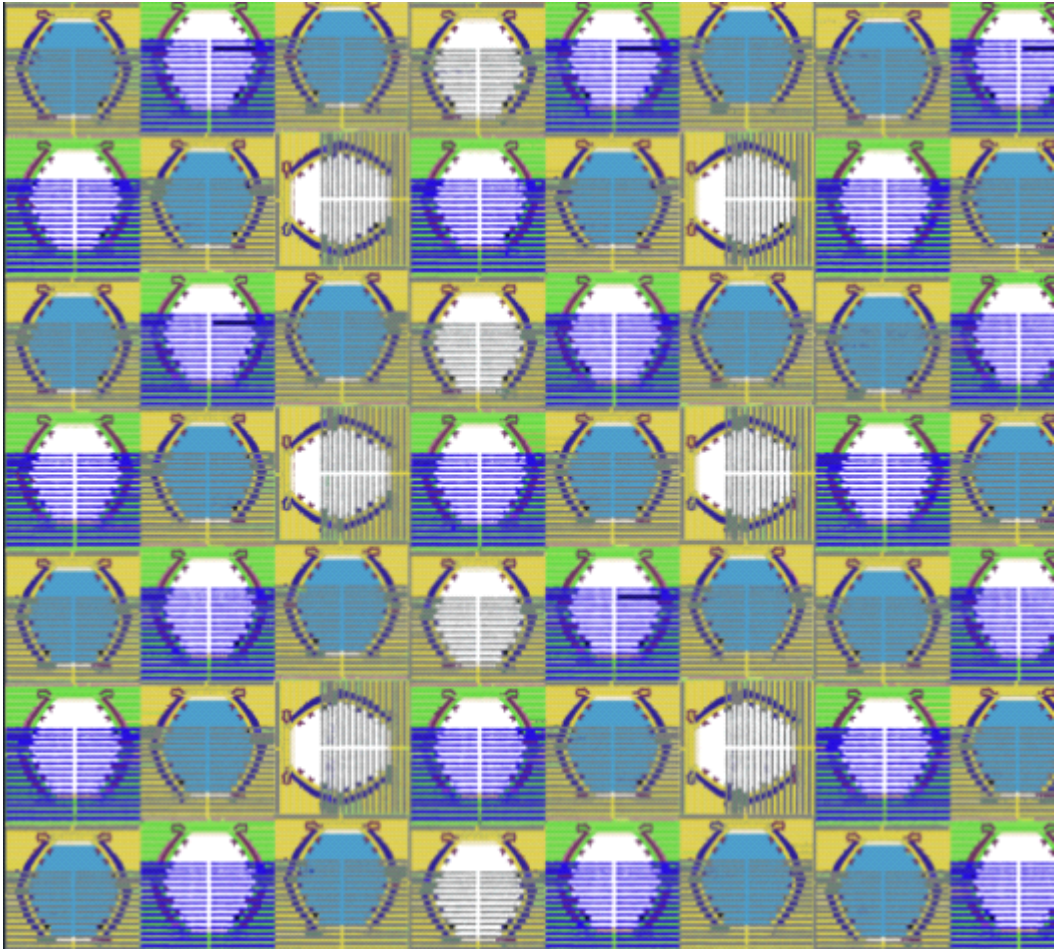
HamonyM 1: 072C, 306C, 172C



HamonyM 2, 2084C, 306C, 102C



<작품 12> 유니버스 B, Digital Textile Printing, Oxford Fabric,
117X80mm, 2024



<작품 13> 유니버스 W, Digital Textile Printing, Oxford Fabric,
117X80mm, 2024

Theme 12, 13: 유니버스B, W, 2024

Size: 140 X 270 (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창호를 통해 바라본 고궁의 낮과 밤 풍경을 하나의 유닛으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복잡한 기와의 구조를 저채도로 배색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높였다. 이를 통해 유닛들이 행을 따라 회전하고 반복되면서 균일한 화면을 구성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더욱 강화하였다. 무엇보다도 가느다란 기와의 구조를 화면 전면으로 부각시켜 창호의 깊이감을 강조함으로써, 시공간적인 확장성을 주었으며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내면을 연결하며,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깊이 있는 사색에 잠길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더불어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를 통해 만들어진 평면 작품은 유닛의 반복을 통한 연쇄성과 운동성을 강조하며,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을 연출하여 시각화하였다.

2) Main Color (PANTON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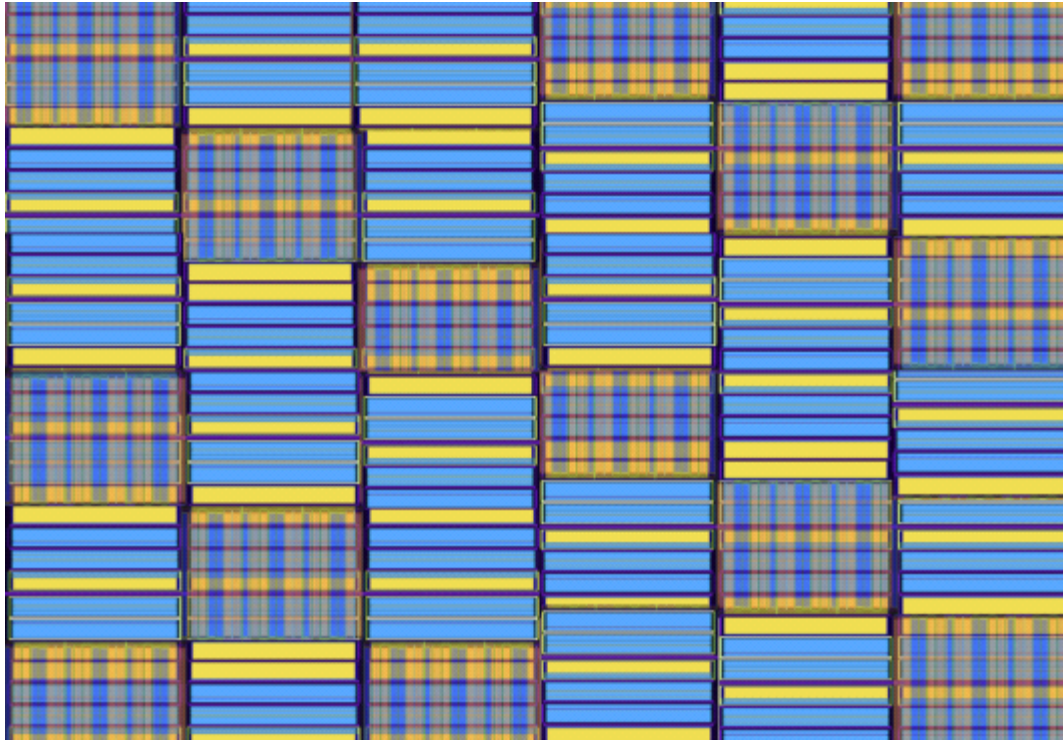
유니버스 B:

102C, 7702C, 5395C, 2287C, 072C



유니버스 W:

102C, 7702C, 2287C, 072C



<작품 14> 공간의 소리, Digital Textile Printing, Oxford Fabric,
117X80mm, 2024

Theme 15: 공간의 소리 2024

Size: 117 X 80 (mm)

Technique: Illustration & Photoshop, Digital-print,

Purpose: Framed Display

1) 작품 전개 방법:

창을 통하여 밖을 바라보면 소리는 감촉되어 들리고 움직임들은 판토마임으로 보인다. 전각들의 창을 통한 내부와 외부의 영역을 변화 확장시켜 전통적인 공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내·외부 공간을 소통시킨 시각적 연속성을 해석하였다. 수직, 수평의 선들이 교차하여 생성된 면들에 각각 존재하는 면의 색채의 투시와 중첩을 통해 대중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체크 패턴을 디자인하였으며 반복적 패턴을 통한 배열은 균일한 힘의 분배를 가져오면서 시각적 안정감을 전달한다.

2) Main Color (PANTONE NO.)

청색은 창호에서 바라본 하늘의 색채로 내부와 외부 공간의 시각적 연속성을 강조하고, 공간 전체에 조화로운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306C, 2592C, 5395C, 102C, 072C

2) K-디자인과 문화상품 개발

K-Culture의 확장으로 패션 분야의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서는 한국 고유의 조형적 특성을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고궁의 역사와 고찰을 바탕으로 전통 디자인을 응용한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 문양의 형태를 단순히 차용하는 데 그쳐 현대적인 재해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고궁 창호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K-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는 데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고자 한다.



<작품 15> 문화상품 개발, 에코가방, 2024 .

고궁 창호의 예술과 텍스타일디자인의 공존 개념은 현대 소비 시대에서 가치소비에 조명된다. 고궁 창호의 기하학적인 형태는 극도로 단순화된 미니멀적 면 구성과 선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예적인 심상이 강하게 들어 있다. 한국 전통디자인의 예술적인 가치를 찾고 고급스러움 제시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서 문화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문화상품을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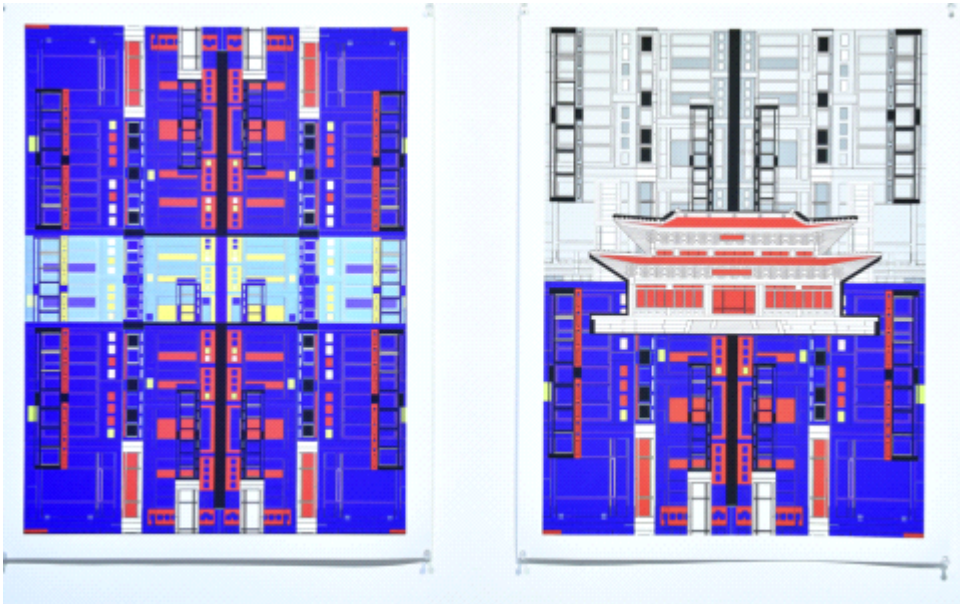
<도판 23> 연구자의 에코 가방과 고궁의 전각/ 필자 촬영



<전시장 풍경 1>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갤러리아트스페이스,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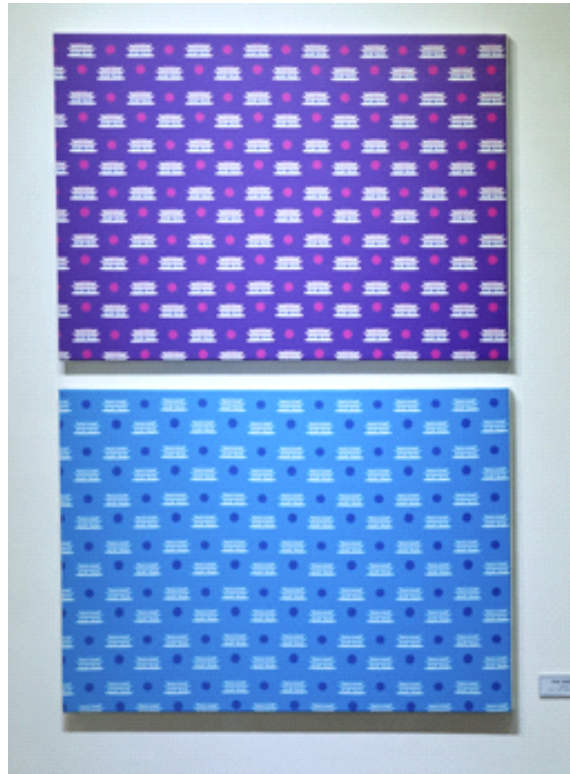
<전시장 풍경 2>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갤러리아트스페이스,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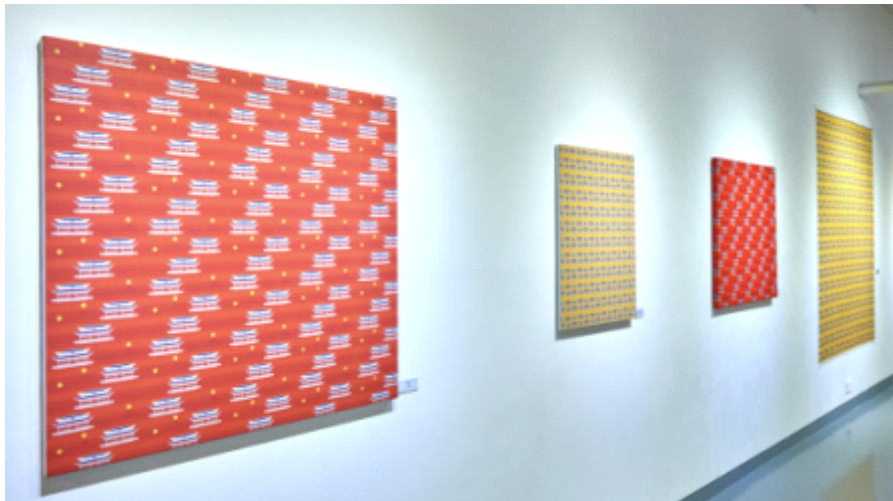
<전시장 풍경 3>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갤러리아트스페이스,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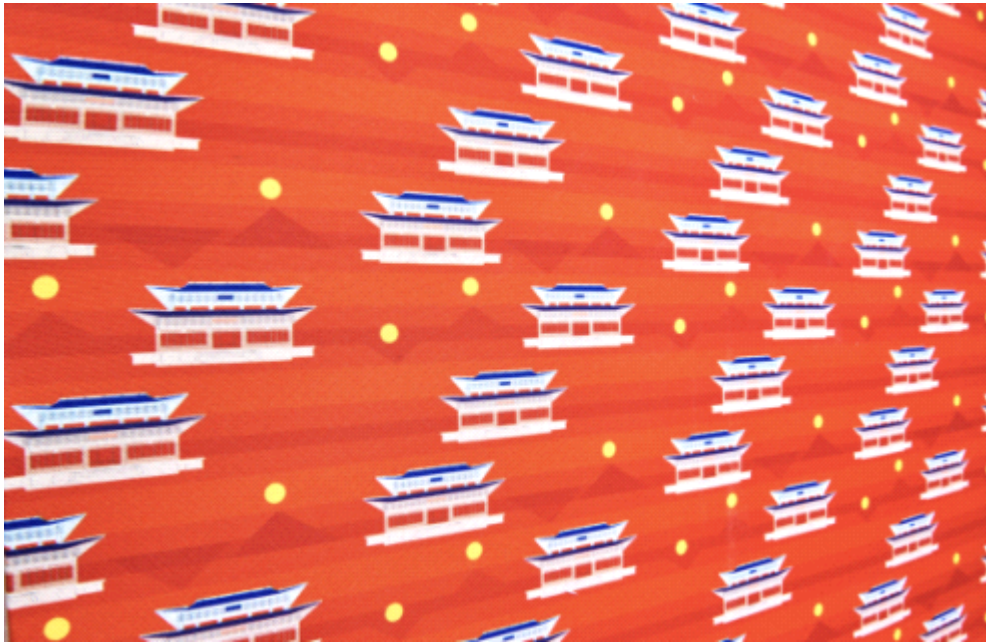
<전시장 풍경 4>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갤러리아트스페이스, 2024



<전시장 풍경 5>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갤러리아아트스페이스,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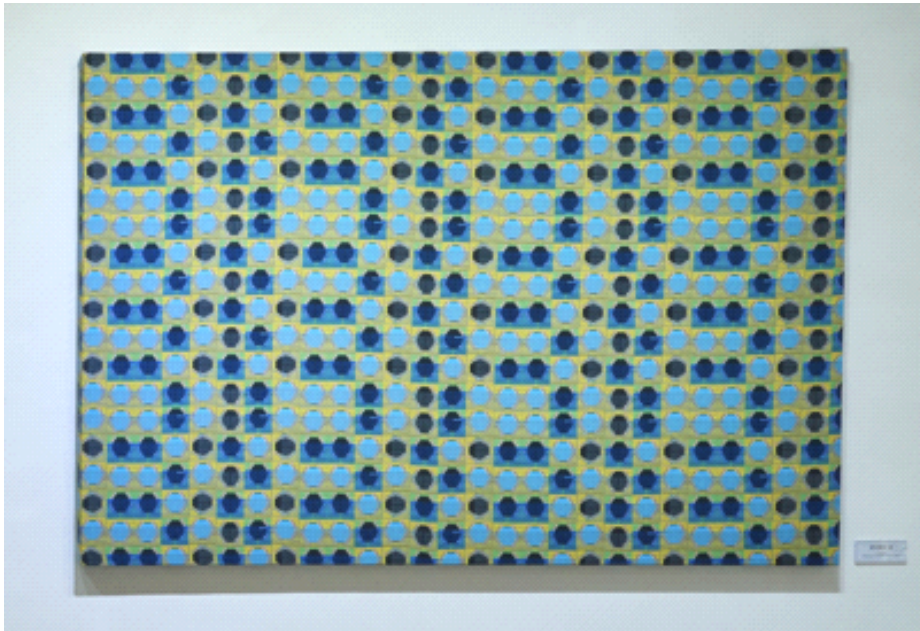
<전시장 풍경 6>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갤러리아아트스페이스, 2024



<전시장 풍경 7>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갤러리아트스페이스, 2024



<전시장 풍경 8>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갤러리아트스페이스, 2024



<전시장 풍경 9>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갤러리아트스페이스, 2024



<전시장 풍경 10> 연구자의 박사학위전, 갤러리아트스페이스, 2024

V.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및 성과

본 연구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궁 창호의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활용한 패턴 개발로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 한국 전통문화 패턴을 접목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과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을 조형적 요소로 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고궁 건축과 창호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한류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하여 한류와 K-Culture의 변화 사례들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의 대표 건축물인 경복궁 창호의 이미지를 규정하고 한국적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복궁 건축의 조영 배경인 주례의 유교적 사상과 전각 배치의 중심축과 좌묘우사, 전조후시의 특징과 창호의 건축적 조형성은 그 배경이 되는 시대적, 전통적 가치의 우수성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에 나타나는 고궁의 이미지는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소통의 매개체로서 한국문화의 독창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궁 창호의 건축적 특징에 대한 시각이론을 통하여, 상징적 의미와 함께 창호 창살의 선과 면이 교차하는 기하학적 추상성을 기반으로 구조적 원리와 비대칭성, 추상성, 조화성, 투시와 중첩성을 도출하였다. 고궁 창호의 특징적 요소는 본 연구에 필요한 디자인적 특성에 부합하였으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통해 확장성을 모색하였다.

셋째, 한국 전통 건축의 위치별, 계절별 다양한 배색은 한국의 조형 의식이 반영된 배색 팔레트로써 한국적 조형미가 요구되는 색채계획에 연구 자료로써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작품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알게 된 고궁의 구성요소와 시지각의 이론, 기하학적 분석을 통한 건축미를 배경은 한국 전통문화 요소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2. 텍스타일 디자인을 통한 K-Culture 확산의 가능성

텍스타일 디자인 영역에서 K-Culture를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자료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박서보, 하종현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의 독창적인 조형성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K-브랜드 '다시봄', '이세', '미미달'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창의적 접근의 확산은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궁 창호의 상징적 의미와 조형적 특징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텍스타일 디자인에 창의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고궁 창호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에코백 제작을 통해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K-Culture 트렌드를 선

도하는 새로운 디자인 기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K-Culture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분석 체계는 한 시대와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텍스타일 디자인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디자이너의 사상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디자인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텍스타일 디자인의 다층적인 의미를 사례연구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 속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텍스타일 디자인을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 위택환. 『한류.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12
- 임석재, 『예禮 예로 지은 경복궁 동양미학으로 읽다』, 인물과 사상사, 2015
- 홍순민, 『홍순민의 한양읽기 고궁<상>』, (주)놀와, 2017
- 김경희, 『게슈탈트 심리학』, 학지사, 2000
- 김낙중. 정태용, 『루이스 칸-건축의 본질을 찾아서』, 살림, 2013
- 정병현. 『(정병현 교수의)강의실 밖 그림 이야기』, 비비트리북스, 2023
- 김미옥, 『입체조형의 이해』, 그루, 2000
- 김병익. 이응직, 『디자인개론』, 서울: 태학원, 2007
- 루돌프 아르하임, 『엔트로피와 예술-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시론』, 오용록 역. 전파과학사, 2017
- 루돌프 아르하임,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루이스 칸, 『루이스 칸 작품과 프로젝트』, 이효원 역, 엠지에이치엔드매그로우한, 2009
- 마이크 에스큐, 『기하학 캠프』, 이영기 역, 컬처북, 2018
- 마이클 슈나이더,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이충호 역, 경문사, 2002
- 미란다 룬디. 『신성한 기하학』. 광영직 역, 시스템아, 2010
- 바실리 칸딘스키,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2000

바실리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선·면-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당, 2019

정병헌. 『(정병헌 교수의)강의실 밖 그림 이야기』, 비비트리북스, 2023

봉일법, 『움직이는 기하학』, 시공문화사, 2002

앙리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황수영역, 아카넷, 2005

이병철. 『역사의 시작은 현재다』, 개마고원, 2017

Morana, Cyril ; Oudin, Eric ; 역 한의정, 『예술철학』, 미술문화, 2013

앙리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장기인, 『한국 건축 대계 I :창호』, 보성각, 2000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 202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백서』, 2022

이현지. 『한류백서』, 교보문고, 2023

<학위논문>

박장순. 「한류의 생성 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미혜. 「조선 후기 궁궐 단청문양의 브랜드 개발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장우준. 「한류전파 활성화를 위한 요인분석」,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정민희. 「K-Culture 이미지 분석을 통한 텍스타일 디자인 트렌드 정보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최선영, 「공간 그리드구조의 디자인 요소로서 셀-유닛이 형태와 구성」,

-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선다혜, 「기하학적 모듈화를 이용한 섬유조형의 서정성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박희용, 「창덕궁 정전 영역의 구성과 운영」,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영일, 「경복궁의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장지연, 「고려, 조선초 국도풍수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아영. 「(2023) 한류 백서. 서울: KOFICE」, 2024.
- 문화체육관광부 「'신(新)'한류 진흥정책보고서」, 2022
-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4
- 문화체육관광부,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보고서」, 2023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백서」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학술논문>

- 조영주, 2019, 「전통 문양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연구 - 가방 디자인을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Vol.56 No.56호, p.177-185
- 장규수. 2011.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9, p.166-173
- 최현철. 2021, 「한류 4.0, 신(新)한류는 어떤 대중문화인가?: D. 닷슨의 대중문화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No.11, p.253-272
- 고영란, 김경숙, 박영목, 박인석, 최순희. 2005, 「한류(韓流)'로부터 디자인 '한류(韓類)'로」,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310 - 311
- 정민희 and 윤세환. 2024, 「한국적 텍스타일 디자인 기획을 위한

- K-Culture 트렌드 스타일 제안」,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30, No.2, p.423-437
- 정민희. 「K-Culture 이미지 분석을 통한 텍스타일 디자인 트렌드 정보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이혁기. (2022, 12). Current Economy K-미술 픽한 루이비통의 전략적 선택 :루이비통, ‘두마리 토끼’(탐욕+성장) 노리다. 더스쿠프, No.525, p.30-31.
- 김관중, 2016, 「경복궁 이미지 문양 텍스타일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No.26, p.31-43
- 송재민. 2018, 「K-Culture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36-52
- 이경순 and 최윤미. 2022), 「K-pop 스타 상징물과 전통문양을 결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BTS의 ‘IDOL’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Vol.24, No.1, p.1-14.
- 이강근, 2011, 「기록문화재를 통한 조선시대미술의 도상해석학적 연구특집 : 조선(朝鮮) 전반기(前半期) 궁궐건축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미술사학, Vol.36, p.365-395
- 김규순. 2019, 「조선 궁궐 입지 선정의 기준과 지형에 대한 연구 - 경복궁과 창덕궁을 중심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 Vol.52. No.3, p.130-145
- 김명식, 2016, 「건축의 원리로서 연속성의 형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Vol.32, No.8, p.103-111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24,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Vol.13, p.17
- 김현수, 2016, 조선시대 궁궐(宮闕) 건축의 원리와 그 사상적 기반으로서의 예(禮) 연구,- 경복궁(景福宮)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Vol.51,

p.125-155

이강근, 「기록 문화재를 통한 조선시대 미술의 도상 해석학적 연구 특집 :
조선(朝鮮) 전반기(前半期) 궁궐 건축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 미술사학회, VOL.36, 2011

<웹사이트>

<https://www.artkoreatv.com>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281>

<https://www.jackson-pollock.org>

<https://www.moma.org>

<https://www.susansheehangallery.com/>

<https://www.susansheehangallery.com/>

<https://www.tate.org.uk>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281>,

<https://www.mutualart.com/Artwork/Double-Mitered-Maze/5F295D52182F6A>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3_view.asp?seq=8159

<http://www.apparelnews.co.kr>

<https://www.fi.co.kr/main/view.asp?idx=7918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62556>

[http://www.apparelnews.co.kr\(2](http://www.apparelnews.co.kr(2)

https://www.instagram.com/p/BfyHmtGF2eT/?img_index=1

<https://www.instagram.com/darcygom/>

<https://blog.naver.com/designpress2016/222080253029>

<https://www.kculture.or.kr/brd/board/890/L/menu/898?brdType=R&bbIdx=1>

4078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main/getMainForm.do>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756168&memberNo= 36301288&vType=VERTICAL](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756168&memberNo=36301288&vType=VERTICAL)

Abstract

A Study on the Textile Design Using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Old Palace Window

CHUNG, YOO JIN

Crafts Major

Departmen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work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palace windows.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centered on diffusion of K-Culture of Korean cultural product,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palaces and the formative elements of windows and applicability of textile design.

In cultural content industry of modern society, design trends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IT), high-speed informatization and the influence of mass media. Global networks have opened a new era, in which diverse cultures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interact and merge, beyond design trends and popular culture, and in this change, Korean culture is attracting global attention under the name of 'Korean Wave'. In 2015, CHANEL held a fashion

show in Seoul with 95 costumes that reinterpret Korean traditional costume, HANBOK, and feature beauty of Korean tradition, and in 2024, GUCCI held a fashion show in Korea, which was made at Geunjeongjeon Hall in Gyeongbokgung Palace for the first time. In the same year, author Han Kang's award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once again has brought Korean culture into the global spotlight, raising the status of whole Korean literature and opening a new chapter in global cultural exchange for Korean culture. K-content has served as a means for publicizing the excellence of Korean culture, contributed greatly to attraction of foreigners into Korea, and increased the demand for Korean cultural products. This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not only recognize the value of Korean culture, but also spread cultural content to global markets. This will allow for establishment of unique styles of Korean culture and enhancement of both originality of K-Culture and the status of Korean culture, thus seeking for spread of Korean design having glob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has provides theoretical basis for the researcher's textile identity analyzing case studies of the globalization of K-Culture and the textile industry and case studies of the fus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on the basis of study of historical documents relating to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windows of Gyeongbokgung palace, the only authentic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which is not only a product of the times that fully comprises Korean history but also integrates the greatest scientific technology and creative arts of the time.

The Korean Wave is more than just a fad; it is a cultural phenomenon

that has been naturally formed over time from results of cultural assets and creative activities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Just as palaces, which represent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of our country, piles up layers of historical time and culture, the Korean Wave is also a living cultural heritage that has changed and developed over time.

This study aims to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Korean cultural products, and to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s that reflect the excellence of Korean culture by way of using of motifs for the formative elements of windows from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windows of the palace, interpreting as a symbolic space reflecting the status of the country and the spirit of its people and as a space-time intersection connecting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developing the artistic value and symbolism of palace windows into textile design.

Chapter 1 as an introduction analyzes the structural form of palace windows and describes the structural form of palace windows and the background of the study on geometric abstraction and the definitiveness of K-Culture. It describes that products of this study serve for textile desig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al products after studying the academic value through the history and architectural features of palace architecture,

Chapter II conducts to an in-depth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style and window characteristics of the palace, centered on Gyeongbokgung palace, which is the authentic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among Korean palaces.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structural forms and

patterns of windows, which various halls in Gyeongbokgung palace comprise, discovers the spatial expandability and variability, which geometric elements and repetitive structures of window patterns have, and review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m to textiles. In Chapter 3, we collect and analyze cases on the stages of change in Korean Wave culture over time and the sustainability and cultural identity in the textile and fashion industries to expand the convergence of K-Culture and the textile industry. Through such Korean contents, it aims to effectively reflect the unique beauty of Korea on textile design, reinterpret the beauty of tradition, and present new designs, thereby pursuing the unity of tradition and modernity.

Chapter III collects and analyzes cases relating to stages of change in Korean Wave culture over time, the sustainability in the textile and fashion industries, and its cultural identity by way of analysis of cases for expansion through convergence of K-Culture and the textile industry. Among the various fields of the Korean Wave phenomenon, it studies the originality of Korean culture applied to K-brand and textile design. It suggests perspective of utilizing the formativeness of traditional crafts and modern textile design in the process of producing various fashion products, and the technique of material reconstruction from cases of the integration of the geometric element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 structural forms of palace architecture and windows derived from the study into K-art and modern fashion. Furthermore, it derives design utilizing geometric elements through the prior study of palaces and windows, and a method of minimalizing visual patternizing.

In Chapter IV, it develops new textile design that combines the formative techniques of palace windows with textile design by conducting visual patterning methods of textile design reflecting architectural features of traditional windows. It has the purpose of conducting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fashion 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digital textile printing method using the studied design. Design trends are derived from research on fashion cultural products and trend keywords are analyzed through various case studies.

Chapter V organizes results through a summary and research of the contents mentioned in detailed descriptions of this study. By way of the above research and analysis, it is hoped that the creativity and symbolism of textile design utilizing Korean images will be utilized not only on artistic works but also in the field of commercial fashion cultural products that objectify unique Korean cultural designs and have artistic value.